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京城府堅志洞一九五 朝鮮日報社

社說

金浦水組廢止에 對하야

産米政策의 [illegible]

一

朝鮮의産米增殖計劃은 當局者의說明과가티『農家經濟의向上과半島經濟의充實』을 表現치못하고 도리어그反對의現象을 招致하얏다. 勿論거긔對해서는 全世界農業恐慌의 襲來가一因이라고도主張할수잇스나 그래도그太半의責任을 當初의設計의疏略으로아니돌릴수업다 위선 金浦水利組合의現狀을가지고 생각해보라! 蒙利必要面積은 設計面積의不過三割內外요 또土地에向해一銖一錙를加하기前 十萬圓의巨額이濫盡되야버리엇다 그래서그區域內地主들은 十萬圓의金額을各自配分辨償키로決定하고 지금水組廢止를懇願키에이르럿다 勿論水組設置區域의調査 水組設計의作成等 直接當局者로서 行한바는아니다만 民衆의巨大한利害를 疎略한調査와設計에내맛기는것은 當局者도責任을分擔하여야할것이다 根本的으로日本內市場과 朝鮮米의關係는且置코라도이와가튼態度아래進行되는그計劃이 成功을企待키는困難한일이니 오늘날全朝鮮水組業績의不良은 그原因의所在가自明한바다

二

再昨年末現在 土地改良事業의 所要된資金은 九千五百七十五萬圓인바 그中의若干部分은 國庫補助와 企業者調達로써充當하얏스나 그大部分은大藏省預金部와 東拓殖銀으로부터 各年額식을 借入한것이다 預金部의金利는 年利五分九厘로 定하엿든것이 歷次의利下로 因해五分三厘에까지이르럿고 殖銀과東拓의 金利는恒常그보담 三分乃至二分八九厘高이엇다 지금에잇서土地改良事業을 總決算한다면 무엇이남는가? 첫재로는 東拓과殖銀의利貸로보아 莫大한 事業이니 水組費에對한 絶對的保障은 利貸上다시업는安全地帶를 이루어잇는터이다 둘재로는 設計者나請負業者等의取利로보아 조흔工事니 杜撰의設計와高價의請負는 當局者의嚴密코冷酷한監督으로써도 周到히미치지못하려든 더구나當局者에게 그와가튼監督조차도缺如되야잇슴에랴 그러니水組區域內土地所有者의利害는 엇지되는가? 여긔서 十萬圓의莫大한犧牲을提供할지언정 차라리水組를廢止코자하는 奇現象의새運動이 일어나게되는것이다 이러한廢止運動을 이르키기는 金浦水組區內의地主가 처음이나 水組設置反對 또는水組設計及工事에對한만흔陳情은 水組에對한一般의利害를 證明하고도남음이잇다

三

못노라! 總督府當局者로서 그消耗額을 金浦地主들의辨償하는 그消耗額을 果然收納하고 水組廢止를認可할것인가? 그러치안할것인가? 金浦水組의失敗가 決코金浦地主의 錯誤가아닌以上當局者로서는安然히 그들에게向해 그消耗額을辨償시길수업슬것이다 그消耗額은 [illegible]이아니라아미 損害를前提한不必要의水組로인 以上當局者로서는 그들에게向해야할 [illegible]할수도 업슬것이다 當局[illegible]說明하는바는 果然어느곳으로부터 나오는가? [illegible] 當局에서는 金浦地主들의 [illegible] 辨償金을 기다려서 水組의廢止를命하리라고傳하다 우리는當局者를 [illegible]하야 그風聞을 밋고자안하나 萬一當局者의態度가果然그와가티 決定되얏다면 우리의所期가 넘어나어그러짐을 免치못한다 그러나 그것도不採算의水組計劃을 强制로進行시키기는 이보담은 몃十倍낫다 그點으로보아서는 當局의 土地改良政策의 進一步라고 宣揚함을마지못할바다

總督府主催 官民聯合協議會의結果 土地改良事業의再檢討가論議되얏스나 그後農林局의部會의諮申案으로보면 그再檢討의結果는 오즉不採算的土地改良事業의救濟로써 마치엇다 우리가 그再檢討에向해 根本的意義를 企待하바는 勿論아니다만은 그觀角이넘어나偏解됨에 다시音聲을기피하지아니치못한다 採算이안맛는그事業에對해 財源難의總督府로써 救濟하려고 努力하는이보담은 차라리그러한事業을 쌔끗이淸算시키고 그만한財力을 다른곳에 融通하는이만못하지안흔가? 勿論그와가치男斷하기에는 [illegible] 그것은다른問題가아니라 [illegible]히어잇다 그러나그事業을繼續시킨다고 그回收가可能하겟는가? 不可能하다면 하로라도빨리 處理할것이요 또萬一可能하다면 오즉民衆의 責擔으로써 可能할뿐이다 그와가튼可能을 展開하고 臨時彌縫으로써當面을 收拾하다는것은理解키어려운일이다 우리는金浦水組問題를機會로 當局의水利組合政策의 根本的再考를바라며 要求하는者다

世界經濟會議運命은 再次米大統領掌中에

『모레』次官主張은依然强硬

米國回答으로會議는左右

最惡한場面遂現出

【倫敦二十九日發電通】『루즈벨트』大統領의特使『모레』氏의倫敦到着으로 爲替安定策에對하야 何等新局面이展開되리라고期待되는바『모레』氏의主張은依然强硬하야드디여 會議는最惡의場面을 現出하게되엿슴으로歐洲金本位國及英國諸代表가 協議한結果새로『루』大統領에提案할爲替安定에對한新方式 即 所謂爲替思惑防止協定을作成하야 即時이것을 米代表에게手交하엿다 右는事實上의爲替安定과爲替戰爭과의中間을取한一種의妥協案으로提案者側에서萬若米政府가이것도拒否한다고하면그것은全然會議를 破壞하는것이라고 思惟하고잇다 歐洲大陸方面의首席代表의多數는 明日一段各其歸國할豫定으로 이代表들이 再次倫敦으로歸來할는지안할는지는華盛頓으로부터의 回答如何에달녀잇다라는 意見을表하고잇다 結局歐洲의金本位國은 英國을加하야米國에對한 共同戰線을펀것으로 同時에會議의運命은再次『루』大統領의 手中에든形勢가되엿다

【寫眞은『루ー즈벨트』米國大統領】

【倫敦廿九日發電通】經濟會議內外는目下弗爲替의 이야기뿐인데特히二十九日은激甚한動搖와降下의報로非常히注目하야이대로弗이『평』方面으로 進行하면亞米利加는不遠歐洲로부터非常한脅威를밧지안을수업슬터이라고觀測하고잇다그러고爲替思惑防止協力案에對한亞米利加의回答은土曜에到着하리라고豫想되며그때야말로會議가繼續할가潰滅할가가決定될時라고解釋된다

東北帝大敎授 高橋里美
陞敘高等官一等(各通)
大阪帝大敎授 石原修 文檢令第十一條第一項第四號에依하야休職

皇后陛下御慶事

宮內省에서非公式發表

【東京卅日發電通至急報】宮內省에서는三十日午後一時 非公式으로皇后陛下의 御慶事를發表하엿다 皇后陛下에서는 目下御懷妊御四個月로拜診하다

閣議決定事項

【東京三十日發電通】三十日 閣議決定事項은如左하다

一、昭和二年勅令 第三十三號(大正十二年勅令 第四十四號의件) 中改正의件
一、大學特別會計規則中改正의件
一、學校及圖書館特別會計規則中改正의件
一、朝鮮總督府部內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의件
一、人事 史料編纂官 和田英松 京大敎授 星野貞次

灤東地區接收는 中國側方針決定

引繼키爲하야委員會新設하고 會長에는于學忠任命

【北平廿九日發電通】長城以南의非武裝地帶接收에關한中國側의方針은如左히決定하엿다

一、接收委員을灤東地區에派遣하여 李濟春軍과交涉케하야 解決을圖함
二、右解決後北寧鐵路를開通케함
三、地帶의引繼目錄을作成함
四、右目錄에依하야 保安隊를配置함
五、日本軍撤退의區域마다逐次引繼를實行함
六、引繼及保安隊의配置를完了한後灤東一帶의 北寧鐵路의管理權을接受함

即右計劃에依하면 引繼完了前北寧鐵路의開通을圖하려고하는것이다

【北平廿九日發電通】北中政務整理委員會黃郛와北中軍事分會長何應欽은 廿八日夜兩會의聯合會를開催한結果 戰區接收委員會를新設키로決定하고 河北省政府首席于學忠을同委員會長에 李擇一 殷宗澤을同委員에任命한바 右委員은廿九日午後四時廿五分發天津에向한바同地에서會議를開催한後 日本軍의撤退한地域을逐次引繼할豫定이다 灤東地區에잇서서의李濟春問題 保安隊問題等도右委員會의손으로處理하도록되엿다

戰地接收委員會의 中立地帶接收順序

【天津三十日發電通】七月一日天津에서成立될中國側의戰區接收委員會는大體如左히決定하엿다

一、委員長于學忠으로부터戰區接收委員會를召集하야
一、河北省各縣長을召集하야 接收要項을傳達함
一、義勇軍의 改編善後處置키爲하야 代表를李濟春에게派함
一、北寧線交通恢復의 運輸計劃及其實施員을各縣에派하야 接收事務를容易케함
一、北寧線의接收實行

長城을國境으로 認定키不能하다

中國側의主張하는點

【天津三十日發電通】中立地帶接收에關하야中國側은長城線의滿中國境에對하야如左한見解를主張하고잇다

中國側은長城으로서 滿洲國과의國境으로 認定할수가업다 萬里長城을사이하두고最少限度南北若干里의 地域를劃定하야 兩國軍을駐屯시킬것이다

京大總長後任 山本博士任命

【東京三十日發電通】京大總長辭令은三十日如左히正式으로發令되엿다

京都帝國大學敎授 山本美越乃
京都帝國大學總長事務取扱을命함

臺灣米一期 收穫豫想 三百八十三萬餘石

【臺北三十日發電通】臺灣總督府殖產局發表에依하면八年度一期米作付面積은二十九萬五千百四十八甲으로收穫高는三百八十三萬四千三百九十八石으로豫想된다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三十九萬七千四十九石(九分一厘)의減少다

米海軍新政策 根據地擴張

發表된聲明書內容

【聯合華盛頓二十九日發】米海軍省은二十九日米國新海軍政策에關한 聲明書를發表하얏다 右는倫敦海軍條約成立後發表된海軍政策聲明書에代하는것으로그 가진重要한點은 舊政策이太平洋에在한海軍根據地를桑港附近一個所로햇슴에 對하야新政策은이를二個所에增加한點으로新政策聲明書에曰

從來太平洋岸에在한 海軍의活動의中心은『싼프란씨스코』地方에 局限되여잇섯스나今後에는太平洋大西洋이各其二個의根據地를가지지안으면안된다그리고海岸에在한海軍의設備는平時는洋上의兵力을保持함에裕足하고事變에際하여는其必要에應하야膨脹하는可能力을갓게하는것이必要하다

그리고 太平洋의新根據地는海軍部內에서는從來의『싼프란씨스코』地方以外에『워싱톤』州의『프레마ー톤』地方을豫하여잇고大西洋에 잇서는『벌지니아』州及『로드아일랜드』州를豫하야잇다

根據地增設은 大擴張의前提

日本海軍側觀測

【聯合東京三十日發電通】既報한바와가티 米國海軍省이新政策을發表하야 太平洋岸根據地主義를强調하고잇슴에 關하야 日本海軍當局은如左히觀測하고잇다即

米國의 新海軍政策聲明에對하야서는 아직正式報告에接하지못하엿스나 過般大建艦計劃으로推測하면 잇슴즉한일이다 그러나新根據地가된『프레마ー톤』地方에도要港部程度의 設備가잇서그것을 今日새삼스럽게聲明함은 今後積極的으로海軍大擴張을하려는 意味로注目할일이다

南京政府打倒코자 三角同盟을組織

馮閻兩人과合作코자

西南派密使向北平發

【廣東發】廣東을中心으로한西南派의 反蔣運動은 依然繼續中인데文治派는 日中停戰協定을利用하야 積極抗日을標語로反蔣의旗幟를樹立코자하는實力派中에는 自重을主唱하는者만다 그反面에武器의輸入이盛旺한것은 特히注目할點인바十九路軍이機關銃과飛行機의材料를米國으로부터多數購入하엿고陳濟棠도飛行機를多量으로秘密히購入하엿다한다그리고西南派와馮玉祥의聯絡은아직秘密裡에進行中으로廣東省財政部長 區藝浦는西南執行部의命令으로最近北平에向하얏는바 그目的은馮玉祥 閻錫山等과合作하야三角同盟으로南京政府打倒의運動을이르키려함이라고한다

滿洲攪亂運動繼續

南京政府密派女子變裝隊侵入

露國國境方面엔金融攪亂코자 紙幣僞造陰謀隊侵入

【北平發】日中停戰成立以後 排日과滿洲攪亂에對한中國側의 態度如何는 日本當局側의注目하는바인데北中方面의排日熱은 表面上抗日停止의標語로내부치고잇스나 內面으로何等誠意가업고北平和平門外에本部를둔抗日會는 國民黨部와聯絡하야如前히潛行的으로排日行動을繼續하며 新聞界의論調도 何等變化가업다 特히最近에는 南京政府의密令를바든 多數의便衣隊와 女偵探等이 錦縣滿洲의治安妨害를目的하고 侵入中이다 夏期休暇를利用하야 女官傳員或은 女密偵을歸鄕하는女學生으로 變裝시켜密入시키는바 中二十六日大連日本水上警察署員이 一名의洋裝美人을逮捕하얏는바 그는天津天主敎會婦人部長孫慶花(三六)로携帶한多數의日文字와및滿洲天津間을聯絡하는重要書類를押收하고同船한男女中國人學生을 全部檢擧하야 嚴重取調中이라하며 露國國境方面으로는 滿洲金融을攪亂할目的으로 官銀號十圓紙幣를多數僞造하야滿洲에對陰謀를꾀하는一隊가潛入하엿다는情報가잇다

和蘭金本位 保持를聲明

【東京三十日發電通】與謝野駐蘭代理公使로부터 三十日外務省에達한公電에依하면 和蘭大藏大臣은 二十七日同國金本位制問題에對하야 左와如한聲明을發表하엿다

和蘭貨幣의地位에對하여는何等變更이업고 此에關한流說은根據업는것으로 和蘭政府는金本位制保持를聲明함

더욱、同藏相은 和蘭銀行總裁를식혀 右旨를倫敦에서聲明케하엿다

朝鮮組銀利下 迂餘曲節不免?

그러나結局은實現

日本內銀行의利下에따르는朝鮮組銀의 利下問題에關하야昨二十九日木曜會協議會에서는 信託도 同時에引下하지안흐면信託과의金利의差異는甲二分、乙一分二厘로되며 定期入信託에流注할念慮가잇서 不可能하다는議論이나와 結局結論을엇지못하고散會하엿는데日本內에서利下를斷行하는以上朝鮮으로서는必然的으로斷行하지안흘수업서結局은容易히實現되리라고觀測된다 그러나信託이 [illegible] 會가아마 信託으로서는銀行側에追隨할것이라고 豫測되나或은若干의 迂余曲折을볼는지도몰은다 이에對하야西崎理財課長은다음과가티말한다

利下에對하야는 아직어떠한決定的으로는생각지안엇스나 어떠케할가 各方面과잘議論하고십다고생각하고 잇다이問題는하기로 決定되면即時할수잇는일이다 큰問題는아니다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二二四〇 (二〇高)
鐘新 一一三六〇 (三〇高)
日產 八七七〇 (四〇高)
東新 二〇五七〇 (不變)

濱生糸橫

引 當 九五〇〇
先 九三〇〇

今日本紙十面

朝鮮日報 京城販賣 電光二四

오ー케ー레코ー드

新 양산도 洋樂伴奏 차美香 唱

實用速修 新滿洲語 獨學
實用三千語速修 就職保障 旅行便用 企業捷徑
附錄 滿旅 鐵費 沿宿 線泊 案費 內等 滿戲
同業者注文歡迎
定價 六十錢 送料 二錢 要先金注文
平壤府新倉里 發行所 圖書雜誌文具卸商 東明書館 電話一二二五番 振替京城一二二八八

信號警鐘大賣出
弊店은于今各道、郡、面振興會와 諸位의多大한援助를蒙하와 經濟的實質的物品을製造하야奉仕的低廉한價格으로販賣하오니 貴管內에信號警鐘을使用하시라면 必히弊店으로下命하시압소서
新究信號警鐘

合成鑄物品 口直經一尺 金七圓 / 口直經一尺二寸 金十一圓 / 口直經一尺五寸 金十五圓
合成眞鍮品 口直經一尺 金十七圓 / 口直經一尺二寸 金廿六圓 / 口直經一尺五寸 金四十圓
合成眞鍮品(口直經)七寸金五、六五 八寸金八、九〇 九寸金一一、五五 一尺金一七、五〇 一尺一寸金 八、〇五 一尺二寸金四〇、六五
合成眞鍮品은每字에五錢 合成鑄物品은每字에二十錢式徵收합니다
彫刻을願하실時는 注文하실時는先金을要하오며 代金引換도物品代金半額만은先送하시압소서 【運賃은注文各[illegible]】 十個以上下命하실時는特히割引하게[illegible]
京城府桂洞 [illegible] 商工品[illegible]

東京 大阪 [illegible] 東洋百貨 商業 小[illegible]

禮辭

拜啓者 炎暑가甚하온 이때에高堂이 隆昌하심慶賀하나이다 就白 弊店이 日本포ー드株式會社副代理店으로 營業하든中 多大하신 後援을賜하와感謝함을마지못하나이다 그런데 今回多年포ー드朝鮮特約店으로 活躍하든 株式會社セール商會가 右特約店을辭退하엿스므로 그後繼로日本포ー드社와의間에半島中央六道(京畿、咸南、江原、忠南、忠北、黃海)의特約店 繼承의議가 成하야 아시는바와가티 원체微力이므로 各位의期待에副키어려운 點도잇을것이오나 貴敎示를體하야 誠心誠意奮勵努力하야써 一層活躍을 試하랴하오니 아모쪼록倍奮의後援과 指導를賜하시기를 懇願하오며 玆에 禮辭를드리나이다 또各位의 待望하시든 포ー드一九三三年新型車는벌서發表할心算이엇으나 內地에서 豫想外의好評을博得하야 本社의配給이 如意히進捗치못하야今日까지 遲延된것은 惶恐無地이외다

日本フオード自動車株式會社
特約店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
電話本局二九七五 四二三五番

洛東沿江一帶에 近年稀有의水亂

浸水田畓三千町步、家屋三千戶

危機切迫한龜浦平野

【釜山支局電話】 경남각지의 수해는도모지 상상이상으로그정도가심하야서 벌서면답피해로도 울산(蔚山)에서는사람두명이 익사하고 마산(馬山)에서는한명이 익사하얏다 더욱위험한것은 남강(南江)의증수로서 현재(오후두시현재)십사미돌(십륙척오촌)증수하야귀포(龜浦)부근에는농가일천오백호가잇는지역의제방(堤防)이겨우한자가옷(半)박게남지아니하야물이한자가옷만더붇으면 제방은넘쳐서큰사변을이르키겟슴으로 부산에서는 경남보안과가총출동하고 부산경찰서에서는 다시이십명의 경관이구호하려현장에 급행하얏다 그곳주민일천오백호는 방금창황히피난중이며 지난을축(乙丑)년에 큰참화를본김해대저면(金海大渚面)에는일천삼백명주민의 안부가념려되는현상이다 여긔따라마산선(馬山線)은렬차가불통되엿스며 락동강(洛東江)은삼미돌반의 증수이다 경남도내의침수된 전답은 약삼천정보이다 각지의침수가옥은 오후네시 현재가다음과갓다

▲蔚山二五〇戶▲釜山二四〇戶▲馬山四五〇戶▲晋州二三〇戶 ▲宜寧三七〇戶▲咸安二〇〇戶▲昌寧二〇〇戶▲密陽二七〇戶▲蔚山三五〇戶▲䤝海一四〇戶▲固城五〇戶 ▲統營八〇戶▲河東八五戶▲居昌七〇戶

信友會一週記念

시내창신동(昌信洞)에잇는신우회(信友會)에서는 일일 오후여덜시부터 창립일주년 긔념식을거행한다고한다

大堤防은決潰 水位는刻刻增

【釜山三十日發電通】 남조선일대의각하천은련일의호우로 각각으로증수하야 도로교량은물속에잠기고 가옥은침수되고교통은두절되는등혼란상태에싸젓다 락동강의귀포(龜浦)부근은 한시간에오『쎈티』평균으로증가하야 삼십일오후세시까지사『미돌』칠십오『쎈티』의 수심을보이고잇다 도경찰부의박(朴)보안과장은소할서원을총출동시켜활동중이다 삼십일오후네시이십분경에귀포향도(向島)의제방이무어저서진흙물이넘치기시작하야 새로된큰제방도겨우물우헤두자밧게남지안엇다 만약에 그제방마저문어지면 그아래사는일천오백호의주민이홍수물에삼켜버리울형편에잇슴으로 주민은전전긍긍하고잇다

避難民二千餘名 家屋卅五戶壓潰

【釜山三十日發電通】 락동강구포향도(龜浦向島)의가제방(假堤防)과본제방(本堤防)사히에잇는민가이백호는침수되야위험하게되얏슴으로도경찰부에서는 이이원은 약일천명으로 구조하는중이다 본제방 발동긔선과어선을총동시켜이들주민을수용하야 피난시키고잇다 피난민은대저면(大渚面)의소학교보통학교 청년회관에수용하야 도한자다섯 치를남길편으로락동강정암(鼎岩)부근에서는침수팔『메돌』오십에달하엿다 이외에오후여덜시 부산수정정(釜山水晶町)에서 산이문어저가옥삼십오호가도괴되엿다는 급보가잇서 부산경찰서에서는 즉시구원대를급파하엿다

本社後援二大盛會 超盛況中團圓

三十日夜一齊히擧行하게된 延專野外劇槿花音樂

연희전문 연극부 주최와본사후원의 연전야외 연극공연회는 삼십일 오후여덜시 사분부터연전로천극장(露天劇場)에서개연되엿다 개연시간이 가까워오자 시내 시외로부터 연희로천극장으로 몰려드는 관중은물밀듯하야 삼십시간에넓은 로천극장은사람의회장으로 두르게되엿다 이날밤의 관중은 일천삼사백명에달하얏는데 류천여명을 수용하는로천극장으론 다소 휘척한감이업지못하엿스나 근래에 처음볼성대한모힘이엿다 공연회는 정진석(鄭鎭石)군의개회사로서시작되며 연전음악부의 음악연주가잇슨후 연극이개막되여 만장의갈채중에『아레비아의천막』을마치고 이어서『곽공』(郭公)을 연출하야 천삼백명관중이 열시삼십분경성황한중에 원만히 마치고 폐회되엿다

◇사진설명 연희전문야외극대관중(上) 근화납양음악회장(下) 독주중의홍재유씨(左圖)「아라세아천막」의한장면(右圖)

◇ 춘긔이래의악단의 호화판(豪華版)인 근화납량음악대회(槿花納涼音樂大會)는 삼십일밤여덜시반부터 시작되엿다 공회당의큰『홀』에는 남녀청중으로 빈틈이업는 성황이엿다 이날밤의인긔를 가장 끌게한것은『바이올린』삼중주(三重奏)엿다 만장의청중이 음악의향긔에 취한가운데열시반경에무사 폐회하엿다

細民이九萬二千戶 要救濟窮民四萬戶

의지업는『룸펜』은약이천명 京畿道內貧民層解剖

경긔도지방과(地方課)의조사에의지하건데 경긔도내의 세민계급의수효는 구만이천 륙십륙호에사십삼만 삼백삼십일인 으로이것은 경긔도의 총호수의이할사분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서일본사람은 오십호에일백 사십오인인데 곤궁은하지마는 구제를요구하기까지 이르게된 것은아니다그런데 구조를필요하는조선사람 궁민계급은 삼만구백오십구호에 일만삼천 륙백오십구인으로 권도총호수의 팔분에해당하다 그런고로불량주택에 거주하는사람이 일천삼십 일호에일만이천 칠백사십륙인인데 그중에서인천부(仁川)에오백륙십사호에오천 이백사십륙인 개풍군교면(開豐郡郊面)에서이백십일호에팔백 삼십일인이며 경긔도부근에서드러온외래자(外來者)가일천 륙백륙십일호에 칠천십인이나된다 권긔의 궁민들의직업을보면 자유로 동자가이천삼백팔십사호 고물행상(古物行商)이삼백이십오호이다그러고도내에산재한 거어지는 일천팔백구십사명이라고한다

아치도산은아들 中年에와突然出現

戶籍보면男便死後一年만에出生 異常한親子解消訴訟

나는어린자식을 나은일이 업소하고서 이십구일에 경성지방법원에제소한 로파가잇섯다 그는부내장교정(長橋町)사십오번지에사는 박선묵(朴善默)(夫)으로지금으로부터 오십여년 전에김문연(金文淵)이라는사람과혼인하야 살아오다가 사십삼년전에남편이 죽엇는데 두사람사이에는자식이업섯다 그뒤 박선묵은홀로 집을지키고 지내오든터인데 대정십이년에 친족관계가 잇는김광순(金光順)(四三)이라는사람이 그의집에잠간 거류하고잇섯는데 어떠케된일인지 그해륙월삼십일에 박선묵의적출자(嫡出子)로신고되여서 긔재되엿다그려케호적에언커잇는김광순은명치이십오년시월에 출생 하얏스니 명치이십사년사월에 죽은김문연(박선묵의남편)의친아들이아닌은 물론이오또한 박선묵도그런아들을 나은일은 권연업다 장차 부양관계(扶養關係)라든지가독유산상속(家督遺産相續)라든관계에 여러가지로 영향이만켓슴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가업다는 판결을내려 달나는것이소장의내용이엿다

母親의跳下로 小兒絕命

론산역에참사

이십팔일 오전열한시 사십분에 론산역(論山驛)을 떠난삼백륙구 렬차의 승객중 조선부인한명이 차가떠난후이십『메돌』쯤 진행하얏슬때 돌연렬차로부터 황망히뛰여나려 십『메돌』쯤 진행하는렬차를따라가 차에남젓든 어린아이를 나리우려다 잘못하여 『품』과 렬차사이에 떠러저그부인은 무사하엿스나 아이는왼넙적다리와 바른 무릅아래를 다치여 치료를밧엇스나 동일오후네시반에 드듸어죽엇다 이는전주군 리천면안영리(全州郡雛川面安榮里) 리남하(李南夏) 와 어린아이는 리도룡(李稻龍) 으로 황망(黃發)에서 차를타는데 론산(論山)에서 나릴것을이 젓다가 황망히나리다가 이런참변을보게된것이다

自動車에觸傷

삼십일오전열시오분경에부내본정(本町)삼정목에서신정(新町)『택시』의김경오(金景鎬)(二九)가운전하는자동차와 본정 삼정목 이십일번디 김릉준(金陵俊)(一二)이가 탄자전거가충돌되여 김릉준은치료약이주간을요할부상을 받엇다

『가페』窃盜

시내관철동(貫鐵洞)일백칠번지 리덕구(李德求)(일명巨人=二六)는종로이정목칠십륙번지『가페』만몽(滿蒙)에서 녀급의 외투를 도적질한것을 비롯하야 그『가페』에서 삼사차나 금품을훔쳣스며 우미관관람석부인석에서 손님의 호주머니를 들추는등『가페』와활동사진관 전문의절도인데 이십구일에필경종로서에 잡혀서 방금여죄에대하야 취조중이라한다

木浦에拳銃强盜

現金千四十圓强奪逃走 拳銃은某大官家서窃取 逃走中卽時逮捕

【木浦三十日發電通】 지난삼십일 (木浦府內海岸通)삼번지의칠회사원국지구우(菊池久祐)씨방에 한명의 괴한이침입하야 권총을내여들고 현금일천 사십원을쌔아서갓다는 범인은부내 온금정(溫錦町)에사는뎐안섭(田安燮)(二元)으로 금조팔시 경에 소학교부근에서 격투한끗테 체포되엿바권총은 모대관의집에서 훔친곳이라고한다

永同消費組 今日控訴

경성복심에

충북영동소비조합사건(永同消費組合事件)의 장준(張埈)(四五) 리희수(李羲洙)(二三) 김창수(金昌洙)(二三) 최관흥(崔觀興)(二三) 김량만(金良萬) 손순흥(孫順興)(二六) 민원식(閔元植)(二九) 추교경(秋敎慶)(二六)최 등은 판결을 불복하고 삼십일에경성복심법원으로 공소하얏다

平北厚昌에서 假拳銃强盜

現金三百餘圓强奪

【新義州】 평북후창군후창면(平北厚昌郡厚昌面)장흥동조속곡(面阜栗谷) 강봉길(姜奉吉)의집에 지난이십오일 오전누시경에 네명의 강도가 침입하여주인강씨외에 일명을마승(麻繩)으로결박하고 작란감권총으로위협하다가 돗지안함으로 곤봉으로란타하며 전치어주일가량의 중상을내고 다시동동리에 사는강봉석(姜鳳錫)방에 침입하여 전긔와가튼수단으로 현금 구십사원을강탈하야 가지고 어데로인지종적을 감추엇다는데 목하엄탐중이라한다

麗水下關間의 郵便物直遞送

려수(麗水)를중심으로한남조선지방에 배달되는 일본서들어오는소포(小包)우편물의검사는지금까지는 목포(木浦)우편국에서취급하고 잇섯스나 일본과남조선지방과의 교섭이 빈번해짐을따라 체신국(遞信局)에서는 칠월일일부터 려수 우편국에서 도통관(通關)검사사무를개시하고동시에 남조선지방으로 이입(移入)되는 소포우편물은 려수하관(下關)간의련락선편을리용하도록한다고한다

浸水家屋七百戶

家屋倒潰로死傷者九名 被害酷甚한釜山地方

【釜山三十日發電通】 삼십일오후칠시까지 판명된 부산지방의피해는여좌하다 ▲死者四名▲重傷者五名▲浸水家屋七百十五戶▲堤防決潰十五個所로기타피해는상당한모양이다

江陵固城間 交通杜絕

【江陵支局電話】 동해안일대는 수일전부터 나리는비로각처의 하천이넘쳐다리가 곳곳이류실되여 고성(固城)강릉간의교통기관은 정지되엿는데 오는일일 부터 도보련락의 방법으로통할 모양이다

京電寄附金額 五十萬圓交付

二十九日府尹에게

경성전긔회사에서경성부에긔부하기로한사회사업비긔부금잔액(殘額)오십만원은이십구일오전열시반경전(京電)삼(森)서무과장이제일은행(第一銀行)의정상(井上)부윤에게수교하엿다이에대하야정상부윤은 경전의 긔부금 잔액 오십만원으로는부민관(府民館)을건설하기로대체 결정이되엿는데 인제는긔부금도 정식으로바닷으니 부민관건설로 매진할수잇다고말하는것으로보아 오십만원으로 경성부민관을 건설할것은 결정적인 모양이다

金海岡長逝

해강(海岡)김규진(金圭鎭)씨는 오래동안 폐병(肺病)으로 신음하든중 약석의효가업서 이십팔일 청량리(淸凉里)자택에서 륙십세를 일긔로세상을 떠낫는데 장의(葬儀)는 칠월일일로영결식(永訣式)을대학병원과아페서 거행하리라한다

延專音樂講習

연희전문(延專)학교주최의 제삼회 조선남녀 하긔음악강습회는 팔월일일부터 동월십일까지 동교내에서개최한다는데 참가희망자는 칠월삼십일일까지 회비이원을 첨부하야 동교내 하긔강습회에 참가신청을하기바란다하며기외에자세한 사항은동교로문의하기바란다고

中毒한窃盜

본적을 박천군가남면 령미동(博川郡佳南面嶺美洞)에두고 일정한 주소가업는김상희(金尙熙)(三二)는삼월십오일오후 두시경에 시내효자동(孝子洞)총독부관사(官舍)에서 칠십삼호를 비롯하야 절도 열한건을 하엿다는바 피해액이 이백삼십사원가량인데 그것을 고물상에 파라먹든가 전당을잡혀 이십칠원가량을 모루히네와 유흥비에 소비하엿다는바 그간 종로서에서취조가 끗나서 일건서류와함께송국하엿다한다

今日부터博譜連載

本紙夕刊第三面에

조선일보가 독자본위로 보도와 평론에 모든정성에 최선을다함은 이미세상이인정하는 바어니와 금번에다시독자의오락취미향상을위하야 금일석간부터 제삼면에 장긔(博譜)를내이기로하엿스며 바둑(棋譜)도 불원간 게재하기로되얏다

全政瑨等公判 第三日開廷

경성복심서

전정관(全政瑨)등일곱명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및 출판법위반사건의복심공판은칠월삼일에제일회공판을열기로결정되엿다고한다

朝鮮貿易協會總會

朝鮮貿易協會는 지난二十二日付로 社團法人認可가잇섯슴으로 今三十日午後一時부터 商工會議所에서總會를열고午後四時閉會하엿다 協會는從來의任意團體로부터 社團法人으로昇格이實現되엿슴을機會로 今後더욱活動하게되엿스며爲先近間新京安東에도 支部를增設하기로되엿다

技競運動

岡北中學蹴球팀 平壤遠征

釜山大邱京城을것처서

【平壤】 平壤蹴球團主催日本全岡北中學歡迎蹴球戰은 釜山大邱、京城의遠征을맛치고 七月八日、十日、十一日의三日間平壤府內景昌里光成高普球場에서擧行키로되엿다 競技日割及相對校는다음과갓흐며 全留學生軍對平壤蹴球團의對抗戰及紅、白軍과靑紅軍의模範戰이同時에開催될것이다

▲日割及相對校

七月八日午後四時——五時全岡北中學對崇仁商業

同午後五時半——六時半全留學生對平壤蹴球團

七月十日午後四時——五時全岡北中學對光成高普

同午後五時半——六時半紅白軍模範戰

七月十一日午後四時——五時全岡北中學對崇實中學

同午後五時半——六時半靑紅軍模範戰

京日庭球九日로延期

京城日報主催第十回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中央豫選會는七月二日에行할豫定이엇스나 連日降雨로말미아마 '코―트'가如意치안음으로七月九日에 延期되엿스며더러서參加申請締日은五日까지延期되엿다

唯一한쓰포츠雜誌 『朝鮮體育界』出現

쓰포―츠때이면 누구나期待하든 쓰포―츠雜誌는 오래懸案中이든바 七月一日附로『朝鮮體育界』라는名稱으로出現하엿다 ▲編輯兼發行人李源容氏 ▲發行所京城府鍾路一丁目四六 (一部參拾錢)

全英庭球大會

復式에日本選手活躍

【윔블돈二十九日發電通】 全英庭球選手權大會復式一回戰에布井、佐藤組는 下외스코아로匈牙利組를물니첫다

布井 佐藤 {六―三 六―四 六―四} 카루팔 마이얼

同一回戰에靑木組도勝하엿다

靑木(日) 라캣트(英) {三―六 六―四 六―二 六―二} 푸리―안(英) 반톨(白)

同單式四回戰에三木은現選手權保持者바인스(米)에게敗하엿다

바인스(米) {六―二 六―四 六―四} 三木(日)

今日의運動

▲女子籠球中央豫選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主催의中央豫選戰은 今一日午後三時부터南山小學校內에서 다음과가티擧行

1、女子師範演習科—京城女高

2、龍谷女高—第一女高

3、淑明女高—第二女高

4、進明女高는不戰一勝

▲Y、M、C、A、柔道試合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柔道部에서는 柔道場落成과同時創立二十五週年記念式을 今日午後八時부터 同道場에서擧行한後에定期紅白戰을續行

夏期保健體操班

억센朝鮮

數千學生總動員

억센朝鮮의 建設을 목표로하야 事業의 第一步로 體操班을 派遣하기로되엿다。이事業의 中으로 志願者를뽑아 五日間 하야 體操班을組織하야派遣하고

保健體操班規定

一、參加 京城市內中等以上 男學校在學生中으로 夏休에體操班을 組織指導할意思가잇는者

二、申請 住所、氏名、年齡、學校名、學年、體操班開設豫定地等을 記入하야 朝鮮日報社로申請할일

三、講習 第一回 七月三日부터 五日間 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講師 金保榮、奭權、奭相鳳、金明植 諸氏

四、

五、

六、

七、

八、

九、賞品 賞品授

主催 朝鮮

後援 朝鮮體 中央基督敎靑

七月一日(土曜) (波長四九二米)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價 京城時價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램發表

◇午後〇時五分 獨唱과피아노

一、獨唱
가、望鄕歌……키作曲
나、오ー스잔나……米國民謠
다、님의窓밖에서……브라해作曲

二、피아노獨奏
道化役者……라하마니노프作曲

三、獨唱
가、오나의해빗……카푸아作曲
나、숨어라르로……데카픽스作曲

피아노獨奏及伴奏 李仁範
테너ー 崔聖斗

◇同〇時四〇分 뉴ー스

◇同二時家庭講座 玩具의選擇과簡單한製作法(三) 兪亨穆

◇同四時뉴ー스 職業紹介事項 異常한셈

◇同六時 童話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글잘짓는法과日記잘쓰는法(二) 李定鎬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日本農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가、沈淸傳中 船人따라가는데
나、同 秋月滿庭
다、春香傳中 秋月江山
라、同 못잇겟다
마、同 쑥대머리
金秋月 金南洙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長恨夢 金肇盛 音樂伴奏

◇同九時 歌曲(男唱)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三數
三、搖聲
四、言樂
五、羽編
男唱 河圭一 玄琴 金又堂 楊琴 金相淳 大芩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뉴ー스(A)時報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램發表

第一放送順序

七月一日 (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A)ラヂオ體操▲同六時三〇分(A)英語講座(三十五)▲午後〇時五分 ラヂオメヂイー▲同二時家庭講座 家庭素描に就て 京城變體組合長 佐藤力太郎▲同 お話 元湖▲同大時二〇分(A)ピーㅡㅁの新聞▲同六時二五分(C)こどもの講座▲同七時 ニュース 天氣豫報▲同七時三〇分スポーン講演▲同八時(A)三元放送座談會(東京)(B)三都の文化を語る(大阪)(C)(名古屋)▲同九時(A)連續人情噺 牡丹燈籠(第一席)

◇明日順序◇

七月二日(日曜)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램發表 氣象通報 ▲午後〇時五分 ▲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〇時五〇分 ▲同一時 山月 ▲同一時二〇分(A) 代替樂馬賊(第四回) 解說並獨唱 ▲同 피아노獨奏及伴奏 小倉 ▲同大時 明星學院兒童一同 指揮金 實驗 피아노伴奏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삼가라 伽倻琴散調와倂唱 沈相健 鼓 手洗明珠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指揮 劇部 ▲同九時 ▲同九時三〇分(A)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同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장수

금년백구십칠세로 안해를수물네번어더

◇중국사람리경운이

현대문명이 극한템포로 발전해감을 따라서 독한탄산와사(炭酸瓦斯)와괴게의 소란한 음향와시각을 자극하는 도시의강한생게의 행진등어는것이고 사람들의 건강을 침략하지 안는것이 업슴니다 그런데 지방이몹은와닭인지 황해를건너 중국땅에는 듯기에도드문 장수한늙은이가 잇서서 방금 그나라는 그의 이야기로꽃 곳에서 소문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는 사천성(四川省)의 출신으로서 일홈은 리경운(李慶雲)으로서 일천칠백삼십팔년에 낫다고하니 당년이 일백구십칠세라고 하는데 중국본토는 물론 서장(西藏)안남(安南) 섬라(暹羅)몽고 만주등지를 넘이도 라댕기면서는 약초를구하야 가지고 그것을 다려서먹고 잇다고 합니다 그에게장수의 비결을무럿더니『항상마음을 쌀안치고거름은 비닭이와가티 가볍게하고 집에잇스면 거북이와가티 움직이지안코 잘때에는 개와가티 조용히 게지는것이라』고 말하엿답니다 그는술도잘마시며 평생에 안해를 수물넷채어덧는데현재의 안해가바로 한갑이라고하며 이세기동안을 장수하엿다는 늙은이도 륙십쇠밧게는 되여보이지 안는다 고합니다

月星學院 記念音樂延期

월성학원(月星學院)에서는칠월일일에 창립긔렴 음악회(記念音樂會)를개최하려고하든바사정에의하야 칠월팔일로 연긔하엿다고한다

히트러고함에 놀낸유태계의 독일어머니

◇자녀들을어더케교양할가

김현주

독일에유명한 백림일일신문에 기재된사실을 드려독일녀성게에 얼마나큰 충동과 불안과 지극을 주며 또그들의가정과어린이들의장래에 대하야얼마나만흔불안이잇슬가 하는것을 말슴드리고저함니다 얼마전에 독일재상 『히틀러』씨가 정게(政界)에 나온뒤로 이태리『뭇소리니』의정책과 가튼강렬한 독재의파쇼정책을 쓰고잇습니다 세게대전뒤로 곳이어서 오날까지 안으로는 경제난 사상난또는 정치난이잇고 밧그로는 국제관게가 모든것이 고립되여잇슬뿐만아니라 여러나라의 압박을바더나옵니다 이러한 반성인지는 알수업스나독일국내에서는 비상한 경제와정치를 실시하는동시에 독일민족이아닌 다른민족을특히 유태민족을 배척하며 독일민족을중심삼은 문화,정치,경제를 재건하고저 세게의 이목(耳目)을놀내게합니다 유태인을 배척하고 독일유태인의 저술한책 수십만권을불질너버린일과 유태인으로서의 대학교수 독일관리(官吏)를 도태식히는 일이잇슴니다 공산당 사회민주당색채를가진 주의자를 탄압하고 히틀러! 국민사회당(國民社會黨)은단일당으로될필요가잇다는것을 주장할뿐만아니라 국제군비축소회석에나 혹은 국제경제회석상에서 가튼바를의 군비를축소할것을주장하고 독일구영토를돌려달나는 요구가 잇섯습니다 그리하야 렬국대표(列國代表)의 간담을서늘하게하엿습니다 여기에는 다맛 유태사람의혈통이나 혈통의 관계를가진어머니와 아이들에 대한 애화(哀話)를 단편적으로 독일신문과 잡지상에 표시된 지상연설을 재료삼아 그대강을우리녀성사회에 참고거리로 간단히 말슴드리고저합니다

엇더한 저술가로서 엇더한대학교수로서 엇더한 관리(官吏)로서 엇더한 상점 회사원으로서 당장에 사직을당하고 당장에 커슬젹한을 불살나버릴 때에 그들은 얼마나 큰곤란이 잇섯스며 얼마나 엄청난어울한일이겟슴니가 당장에밥을 굼게됨으로 그들의 가족특히 가정의주부나 어린아이들은얼마나한 곤란과 애처러운일이 잇겟슴니가 독일에 유태의피가 천인구의 삼분이가된다는대 얼마나 만흔 가정이 이러한 곤난이겟슴니가 여기에 여러가지 가정상 사회상불안이잇는 동시에 우리가상상할수업는 여러가지 애화거리가 잇슬것도 사실임니다 유태의 혈통관계를가진 어머니는 이와가치말하엿습니다(계속)

세계에서제일 아들만키는

◇아들삼십팔、딸오명

『도루코』에는 한녀성이 아들과딸이 사십삼인이나 나케되엿는데 그중 아들이 삼십팔명 딸이오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아들딸만키로는 세계에 제일일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그날그날의 생활이곤란함으로 정부에다가 특별한방법을취하야달나고청원하엿다고합니다

과부동리 삼십명이 한곳에산다

영국(英國)『소푸이아』라는곳에는호수가 한오십호가량잇는바 이곳에는 삼십인의 과부만살고잇다고 합니다 한번 이곳에 이사를오게되면 다른데로 떠날생각을하지안코 서로의지하면서 지내어가는까닭에 이 동리를 과부동리라하야 영국에서소문이놉다고합니다

즘생들의…… 어머니사랑(一)

◇사람이상의모성애가잇다

崇專科學館 金秉河

지난사월이삼일경인가? 삼월말일경인가? 그날자는 잘 긔억되지 안이합니다만은 각신문지상에떠드러 보도된것을 보니 경성창경원에서 어린아이가호랑이에게 할키웟스며그 아버지되는이는 서서바라만보고 엇지나!소리만치고잇섯지만 그아이 어머니된이는 죽을힘을다하야 자긔도 호랑이의그사나운 발톱에 갈키움을받아가면서도 조금도앞흔줄을 깨닷지못하며 자긔의 목숨이 끈허지는한이 잇드래도 오즉 자식을 사랑하는마음에서 그호랑이가 무서운줄도 모르고 뛰여드러 아이를 간신히 구하기는하얏스나 그아이와그 어머니는 여러날 치료를밧지안어서는 안이될만큼 상처를바더 입원까지하얏다는 긔사가잇서 여러분도 잘긔억하고 계실것이라생각합니다 그어머니가 자긔자식 사랑하는것이 인생뿐만이 그러한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곤충세게를 보드래도 자긔자식사랑하는 즉모성애(母性愛)는일반이라고생각함니다

여러분의 집뜰압에서노는닭을 보시엇겟지요 그닭으로 말할지라도 암닭은 매일『고욱고욱』하며알낫키를 긔려하며 알낫키를 다맛추면 네에게 나논알리에 닭아주면 듯하게 품지안이함니가? 암닭은 이십여일이나 잘도 제대로 자지못하고 먹을모이도 제쌔에 먹지못하며 알까기에 고심합니다 이러케지 이십일이되면 아장스럽고 어엽분병아리들이 세악!세악! 엄마를 부르기시작합니다 병아리의어머니인 암닭이어머니가되기전에 아니병아리아버지숫닭과 사랑이얼키어주고밧든그때에는 몸에서광채와윤이잘잘흐르고 그마음은 녀성답게꼽고도 온순햇든터러 언케나고요하게 잇지아니함니가? 그러나 병아리를 안다음어머니가되게되면 몸에서광채나고 윤이잘잘흐르든것이 다업서집니다 언케나고요하고 마음이어질고 온순하든것이자긔몸에털을보기실케 일으키고그 마음은 사나워집니다 숫닭이상의 용감력이 생기며 희생적 결심과및 공격적 긔세가 어지간하지아니합니다 만일 독자여러분중에서 한번암닭이 데리고노는 병아리들중에서 한머리를 붓드러보십시요 그암닭은 자긔자식을 비록이생이 만물에 령장으로무섭다할는지?) 쌔아서 가지고 그대로 잡자고잇게는가요? 『이놈야! 내자식을 내노하라』하는듯이 소리를고래고래 즐으며 병아리를 잡고잇는손목을 벼락가치 달니어들어쫌고 그리고 힘껏무러 쩌이지 안이합니가 어린아이들을 기르고게신여러분어머니되시는분에게 한마디 양드리하는데에 병아리를 쌔앗두지마십시요 그것은 필자가 사는 고향에서 어린아이가하도병아리가 어엽부기에 한마리 잡으려고하앗슴니다 암닭은 그어린아이에게 달녀어도 단번에눈알을쪼아 그아이는한눈을 보지못하는불구자가 되엇슴니다 여러분에게서 비록병아리를 아니쎄앗지안드래도 어린아이가 다리고병아리잇는 암닭의근처에 가시거나 놀일이잇서가거든 잘단속하십시요

위생을잘못하면 여름은괴롭다 생명까지빼겨

여름이 길어가고 더워짐을따라서 장마가 들게되면 전염병이 류행되게 됨으로 이배를당하야 가정의부인들은 특별히 주의를하지안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다음멧가지를 주의하십시요

일, 음물의물을 차다고잡수지 마시며 음식물은씻슬써에버려가업는가를보십시요

이, 채소가튼것을 사실써에는 속히우물물에한번 담그시고 다음에는 수도물에다가씻도록하십시요

삼, 음식을만드실써는 손에다가 쌔곳이닥그시고하십시요

사, 음식긔구를항상쌔곳이닥그십시요

오, 물내버리는 수채를항상쌔곳이하시고 소독을하십시요

륙, 변소에항상소독을하시여서 파리가업도록힘쓰십시요

칠, 집안사람은 파리를잡아서 한마리도업도록힘쓰십시요

팔, 만일환자가잇슬써에는 전염병을감기지말고 즉시치료하도록하십시요

童話 겁업는소년

孤峯

지금으로부터 백년전 이야기입니다 그써서울에 쇠돌이라는 어린사람이 잇섯습니다 남자벼락이 머리우에 떠러진대도 눈하나깜작이지안습니다

쇠돌이는 본듸부자로살든사람의 아들인데 자긔 아버지가 엇던사람에게 속아서수만금재물을 한써번에 모다업새벌이고 아조거지가 되엿습니다

겁업고 약거서생긴 쇠돌이는 아버지의돈 쌔서간사람이 강원도춘천잇다는말을듯고 서울서백리나되는 춘천을가기로작정하엿습니다『이놈을잡아서 돈을도로차즐터이다』하고 길을떠낫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혼자서 사흘만에 거의춘천을갓가이왓는데 다리도알흐고 몸도피곤하야 산언덕우에 주저안저서 쉬고잇는데 별안간 산기슭으로서 굉장한 소리가나며 큰황소만한 호랑이두마리가뛰여나오드니 서로싸홈을하는데 야단입니다 다른사람가트면똥을쌋슬것이나 쇠돌이는 꿈작아니하고 안저잇섯습니다 이쌔에 서쪽에서 키가여덜자되는 장사가튼사람이 굽이놉다란 나막신(木鞋)을신고오다가 호랑이가싸호는것을보고 『야ー이놈들보와라하더니』호랑이꽁지를 한손에한아식 잡아서는 한놈은 동쪽으로 한놈은 서쪽으로 내던젓슴니다 호랑이는 혼이쌔저서 달아낫습니다 『여보 이랑반』하고 불넛습니다 그사람은『왜그러니』하고 알흐로왓습니다 그사람보며 『여보나는 호랑이 싸홈을 붓처놋코 구경을하고잇는 판인데왜당신이호랑이를쏫칫소』하고소리를 질으니까ー그사람이고만 겁이덜컥 낫습니다 『아마요것이장사인가보다』하엿습니다 그래서그만『잘못햇소라고』사죄를하고는 산으로넘어갓습니다

쇠돌이는 큰기침을하고 춘천읍에잇는 돈쌔슨집을차저가서 돈을내라고하니까ー주인말이『염녀말나』하고 방에들여안친후 밤이되는후에죽여업새려고 작정하엿습니다 밤이되여 인제는 죽여버릴작정으로 그동리에서 제일힘세인사람을불너대엿습니다 그사람이와서 원놈인가하고 가만이방문을 열고들여다보다가 그만 깜작놀나서 잡바질번하엿습니다 『어구ー하마트면……』하면서 이호랑이가싸홈부치고 구경하든 사람이라든통에 그만꼼작을못하고 돈을모와서 쇠돌에게주며잘못하엿노라고 간신이빌어 쇠돌이는돈을차저가지고 무사이돌아왓슴니다 ——쯧——

童謠 우리애기

曉人

햇죽햇죽 햇님이 동에서뜨고
오아오아 울애기 잠깨울때면
우리엄마 공장서 일하시겟지
×
잠이깨운 울애기 젓을달나고
안어커도 오ー아 안커도오아
엄마오라 오ー아 엇더케하나
×
일러게신 엄마는 젓이부러서
허리춤과 치마폭 적시겟지만
우리애긴 배곱파 우름지누나
×
아가아가 우지마 엄마오신다
서산넘어 해지고 새색이울면
달랑달랑 변도쒸고 엄마오지

新映畵

胡蝶夫人開封

◇二十九日낫부터團成社에서

일본항구에상륙한 미국의해군사관과 예기호졉(胡蝶)사이에는 사랑의실머리가엉키게되여나중에는 결혼까지하게되엿다 그러나 미국해군사관은항상부의명령으로 호졉부인과구든약속을 한후『아메리카』로도라갓다 남편이미국으로도라간후 호접부인의몸에서 사랑의결정이생기게되엿다 호접부인은그아이에다가 모든마음을의뢰하야가지고 남편이도라오기만기다리엿다 어느날 남편의탄군함이항구에엇는다는 소식을듯고질거운거나아가보앗스나 그남편은 미국의녀자와결혼하엿든것이다 그럼으로 호접부인은 그아이를조부에게보내여 양육하여달나고한후 호접부인은자긔아버지명예를위하야 자살하게되엿다 이영화는 파라마운영화로『마리온케ー링』의감독작품으로서 호접부인으로주연하는『시도니』양은 이영화에서 훌륭한연긔를보여주엇다(사진은그한장면)

京城保育學校夏期巡廻演奏團

巡回日程

七月十三日…信川 十四日…黃州 十五日…平壤
十七日…鎭南浦 十八日…宣川 十九日…新義州
二十日…安東縣 廿一日…開原 廿二日…奉天

演奏團員

바이올린…洪蘭坡、洪盛裕、李永世、
피아노…獨孤璇、金元福、白貞鎭、
테너ー…安輔承、소푸래노…李大亨、
合唱隊…京城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各地支局

가정의학

흰머리가나

문 저는이십이세의남지이온데 십오륙세부터 두발에백모가생기더니 지금은두발에반분이나 백모가되엿습니다 지금까지 염색으로참어왓는데염색은위험하다하오니 이것을중지하엿습니다 그런데 백발을현대의약으로는 절대로완치못합닛가 北鮮一讀者

답 특효약이업습니다 醫學博士 朴昌薰

매약으로 매독을곤칠가

문 저는작년사변후로당지의 피란온 삼십삼세된농촌사람입니다 삼년전에매독이라는병이감염되야 그동안주사도륙칠회나마젓습니다만은 별효력을보지못하엿습니다 그리하여서 경제의허락이못됨으로 가정치료를할가합니다 매약으로도완전히근치케될수잇슴닛가 잇다면약명을가라처주시옵소서 奉天 具明會

답 매독을매약으로 완치할수업습니다 반다시의사에게의뢰하여야만됩니다 醫學博士 吳元錫

월경이고르지못해

문 저는이십사세의 녀자인대 작년십일월에 사산(死産)을 하엿습니다 본래월경이고르지 못하엿고 (둘오륙일식늣게나와습니다)쌔쌔로소변이 자젓습니다 삼년전에진찰을하오니 방광염이라기에 주사몃대를 마즈엇이잇습니다 이러한중세와 태아사망과는 무슨관게가 잇습닛가 일, 산후대단이 쇠약하온대 회복식힐약이나 음식물을 알으켜주시요 이, 소변이 매려울쌔는 참기어렵고 아주 참으면 염구리가 너무슨 병일가요 이편중세가 (아마신장인듯)뎌금뎌금하오 임선에엇더한 영향을 줄가요 자세히하……하야주십시요 (一讀者)

답 방광염과 사산과는관게가 업습니다 산후쇠약에 대하야는 의사에게한번 진찰을바다서 그의원인을 알아야거기에 적당한약과 음식물의지도를 밧게될거십니다 소변볼때에 증세는방광염이 마침으로 남아잇는것갓습니다 그러하나 임신에는영향이업슬거십니다 (醫學博士 任明宰)

人形의집을나와서 (노라의後日談) 【34】

蔡萬植作 吉鎭燮畵

첫경험(五)

노ー라는 차라리 어러러면 나는 이야학을 해산식혀바리겟다고 항의를하라고나선것이엇스나 문득 한 게책이 머리에써올나 그대로 두어두엇다

권도부인은 지리하게 무어라고 이약이를 하고나서 벼로소 노ー라를 소개하엿다

노ー라는 코와코를 마조대이다십히하고안저서 몹우 형식을 차리는것이 얼골이 간즈러웟스나 할수업시 교탁압흐로나서서 간단하게 인사를하엿다

야학생들은 선생인 노ー라가 흥미잇는 존재 잇는만큼 무슨 재미잇는 이야이나 나올가하고 기다리다가 평범한 인사에 쓴치는 것이 모다들 섭섭해하는것가텃다

첫날은 반을 갈으고 출석부를 만들고 그밧게 멧가지 야학생들의 준비할 물건을말하여준 뒤에 다음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하엿다

야학은 웃낫스나 모다들 『노ー라를구경』하고 그의 이약이를 듯느라고 오래도록잇다가 헤여저갓다

이튼날은 아침부터 노ー라는 병택이가 기다려젓다 저적도하려니와 어쩐지 그가작고만 기다려젓다

배달된 신문을 고루살펴보며 마적을하고 뒤지며 병택이가 …

『아이구 어쩌세요!』

이러케붉숙 하여 노ー 엇다

… 병택가 … 심을하엿다

『몽랑이 좀 잇서서요……책 가져왓습니다』

하고 병택이는 외투포켓속에서 조고만한책한권을 쓰내준다

파른스름한 포장(布裝)을한 사륙판의 조고만한책인데 숫은 왜만한다

노ー라가 바다들고 이리커리 뒤집어보니 등에다『부인론』이라고썻다

『재미잇서요? 요새 보셧서요?』

하고 물어보앗다

『보긴 전에 보앗는데 글세 원 재미가 잇슬는지……』

『요새는 무슨책을보세요?』

병택이는 씩 웃스면서

『아무거나 보지요』

하고 대여주지아니한다

잠깐 안저서 이약이를하다가 병택이는 부인이 입원을 해도라갓다 어쩌다데로 찾나고나니 어느 일파를 한것뿐이여 노ー라는 마음이 가분하여젓다

병택이가 도라간뒤에 그는 가져다준 책을 펴보앗다

부인론……빼ー벨의 부인론……만히 뜻드린 곳가잇다 책장을 훌훌 넘기면서보니 군데군데 붉은연필로 언터라인이 처어잇다

목차를 훌터보니 꼭 보고십흔것들이다

그리하야 위선 서문을 보기시작하엿다 그러나 첫머리를 조곰보는데 글자는 알어도 뜻은 몰을말이 만혓다 한페ー지가량보는때 삼십분은 걸니는것갓다 그러고도의미를 리해할수가업다 실증이나서 내던젓다가도 잘보아가지고 잘 알엇스면 조켓다는 생각은 간절하엿다

미련이 생겨서 내던젓든것을 도로집어 중간을 펴노코 보앗다

더 알수가업다 … 식욕은 … 나 …

… 런애를 읽히는 … 는법이랑 장갑 … 란법이랑 목도리뜨는법이랑 가르처주ー』

한다

노ー라는 그것을 배우자면 실도사야하고 바눌도 여러가지 사야하는테그러캐 준비를 할수가 잇느냐고 물엇다 모다들 못하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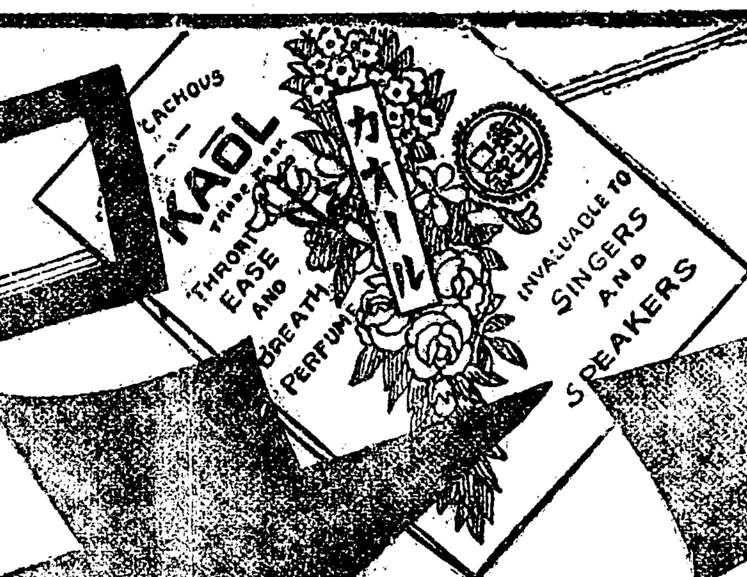
그래서 편물을 시간에 넛키로하니까 김반에서 우리도 가르커주어야한다고 와글와글 떠든다

그들의 하는말이 걸작이다

『우리가 인제 새삼스럽게글을배우면 진사급제를 하겟소? 차라리 당장 필요한 서 써먹을것이나 …

衛生口錠

口中殺菌劑 カオール



一金貳拾萬圓也提供

カオール發賣卅五週年記念事業으로

朝鮮全道五千의藥店에서

國民保健運動用으로써

カオール拾錢包를 빼지안코

贈呈

此運動에協力하시는愛用者는

一、カオール定價金廿錢以上에添付된効能書를熟讀한後、近處의藥店에持參하시면 (國民保健의포스타를단商店)

カオール十錢包와 直時引換케됩니다

但藥店의引換은＝五月十五日부터三個月間

二、期間後又는遠處에게신분은直接 本舖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安藤井筒堂保健運動係로보내시오 (開封하고住所氏名明記할일 郵稅未納不足은接受치안함)

直時カオール十錢包를送付하겟슴니다

三、カオール를바드신분은……

먼저親切한분들에게數粒式을이어

가、病에걸리지안토록

나、病은大概입으로부터侵入함

다、입으로부터侵入하는病을防止하기爲하야汽車、電車、其他사람이만히集中된때、外出할時、食後에カオール를口中에너흘것

等、其他保健衛生에맘머은點을說明해주십시오

如斯한諸位의盡力에依하야 一般保健衛生思想이高潮되어人生最大의幸福을엇게될것입니다꼭協贊하여주십시요

カオール의配劑와其効用

製劑顧問 약 타 松尾 道

一、口中殺菌劑를配合함
달하서空氣又는飲食物과함께口腔으로부터侵入하는黴菌、例하면窒扶斯、虎列刺、流感結核菌等其他病菌病毒은口中에서完全히殺菌하야外此等傳染病을豫防함。

二、健胃整腸劑를配合함
달하서胃를健全케하고、또한그消化力을增進케하야、食慾을增進케하야、下痢、腸加答兒等에整腸劑는殺菌劑와서로協力하야이를治療함。

三、興奮劑及强壯劑를配合함
달하서心身이疲勞沈衰케된時는各機能을興奮시키어氣力을回復旺盛케하며、健胃劑와相俟하야肉體의强壯을圖謀함。

四、淸涼劑及美香劑를配合함
달하서特有의芳香에依하야口中의惡臭、惡熱을除하며袪痰劑는咽喉의乾燥를덜어、音聲을美化케하며달하서精神을爽快케함。

◎그럼으로諸位의保健을爲하야

◇惡疫流行의時 ◇食後
◇他人을接할時 ◇汽車電車탈時
◇執務工夫할時 ◇遠足運動할時
◇口中惡臭날時 ◇飲酒吸煙의時
◇禁煙코저할時 ◇音聲을使用時
◇氣分이낫분時 ◇疲勞를늣길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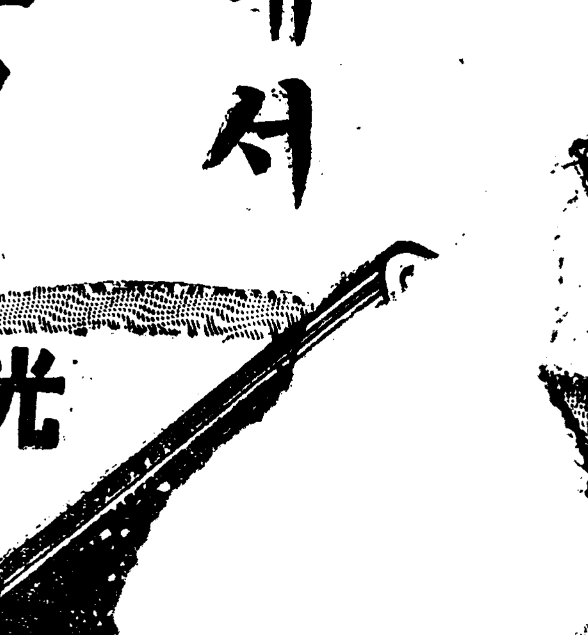
カオール의二、三粒을口中에너십시오、本劑를입에너시면、마스크와、양추질을할必要가업는同時에心身을爽快히하고胃腸을健全케하는効가잇슴

◎本日부터即時カオール의常用을勸告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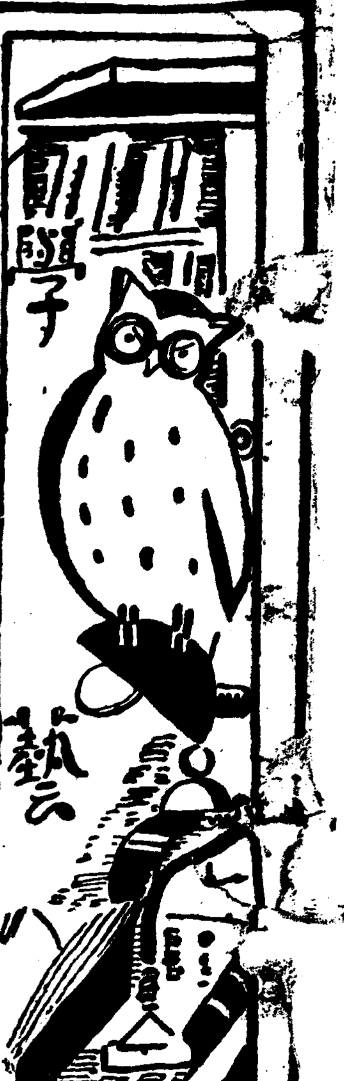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丁字形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新發賣
光輝茶金石製
美術容器
金五十錢
五百粒入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藥品部



世界列强陸軍의陣營 (一)

文 陂 星

大戰後의 歐洲는 相對的安定期를 다마서 恐慌의 害毒에 빠진 帝國主義는 여러가지로 恐慌克服策을 講究하엿스나 結局은 干戈를 相交하지아니하면 안될 情勢에 빠지고마랏다 그를 안全世界 軍縮會議를 열고 洋의 東西와 世界의 新舊를 不問하고 헤메이면서 或은 不戰條約 或은 平和保障條約 日軍縮會議 日不可侵條約이니 거듭하엿스나 國際間의 矛盾은 날로 尖銳化하야 戰爭의 危險을 自己네들로서도 認定하고잇는것은 否認치못할 事實이다 歐洲이 어떠케 金湯의 물려드는것이 事實이라면 各國의 陸海軍 準備狀況을 살펴봄이 必要에 對하야는 여기 贅言을 不要하거니와 筆者 文陂星氏는 朝鮮에서 드믄 軍事硏究者로서 多年間 各國의 軍備狀況을 觀察한 結果로 여기 그 最初의 成果를 發表하게 되엿든것이다 勿論 日本의 軍備狀況에 對하야 省略하기로 決定한것에 對하야는 讀者諸位가 諒解할줄믿는바이다 (編輯者)

(一) 緖論

白杖의 銳利한것과 火焰의 灼熱한것을 아는 人間도 毒이올生기始作하면 그頭腦의 細胞는 異常하게 作用을 한다

世界를 휩쓰는 慢性的 經濟恐慌과 거기에 交叉하는 多角多樣的 努力의 衝突은 各各 自國의 戰爭能力을 더욱더욱 굿게하고 自己軍隊의 戰鬪技術을 더욱더욱 練磨하고잇다

大戰中에 올린피와 破壞된 都市는 다 어저버리고 五個星霜間에 새운 나무의 十字架數도 그들의 記憶中에서 사려저버렷다 그러하야 그들은 歷戰軍人의 戰爭小說을 道手로 歡迎하며 黃色紙가 부르짓지는 第二次 世界大戰論에 眼力을 集中식히고잇다

帝國主義者는 辯明하기를 우리는 決코戰爭을 조와하야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軍備는 完全치아니하면 아니된다 他國의侵略을 防禦하는하면에 우리의權益을 保護하면서 假想敵國을 膺懲식히면 敢히 戰爭을 걸지못하나 世界平和는 이러케 保存할수밧게 업다고

그러나 列强의 그 假想敵國에 對한 無言의 脅威는 너무나 놉벗만치 巨大하야젓다 世界의 軍縮은 너무나 重裝을 거듭하야 이것을 지고 이러스기에는 어려울 形便이다

大戰前의 일이다 當時 『테마프』의 總領首인 『로이드 조-지』가 獨逸의 軍國主義를 攻擊할때에 한 사람이 獨逸의 大陸軍主義와 英國의 大海軍主義는 結局 五十步百步가 아니냐고 詰問하얏다 이에 對하야 『로이드 조-지』는 『獨逸의 陸軍은 倫敦을 占領할수잇지만 英國의 海軍은 伯林을 侵害치못한다』 이러하게 詭辯을 弄한일이 잇다

이것은 弄談이지만 列强의 大部分은 陸軍의 萬障이 아무리 强大하고 海軍의 制海力이 아무리 巨大하야도 結局은 陸軍차홍이 되고 말것이니 아직까지는 陸軍을 決코 輕視할수업는것이다

그러하야 世界各國은 一九三○年代에 適合되게 日, 陸軍의 機械化이니 日, 武裝軍의 新設이니 하야 그內容의 充實과 改良에 全力을 集中식히고잇다 이것은 그 假想敵國을 制壓하는 程度를 버서나 世界의 驚異가될만치 强大하야간다

『쁘뉴-브』 關稅同盟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世界陸軍에 君臨하는 佛蘭西는 五十六萬의 精兵과 三千餘臺의 『탕크』로 命令一下에 『라인』 河를 渡河할 準備를 하고 『몽블랑』 에서 『반디밀-』 까지의 새로운 防禦計劃으로 伊太利의 神經을 銳敏케 하고잇다

이것에 對하야 大戰의 敗戰國인 獨逸은 各種條約으로 正規軍을 十萬으로 制限當하얏으나 精銳無比의 歷戰下士로 十五萬의 警察隊를 組織하고 無數한나치쓰』의 突擊隊는 『모-제』 銃操練에 精神을 일코잇다 國際的機會主義의 總代表인 伊太利는 世界第一의 經濟的軍備를 자랑하면서 三十九萬의 飢餓는 『피앗트』 機關銃의 放熱筒을 어루만지고 『알프쓰』 連山의 白雪을 仰視하고잇다 裝甲軍隊와 그 機動力으로 列强陸軍의 最高位를 占有한 英國은 『솔쓰베리』 平原의 푸른 芝草를 機械化兵團의 『카러필러』로 蹂躪하고잇스며 新世界의 覇王 弗外交의 米國은 四十五萬의 巨人들이 『써라운닝』 自動小銃의 彈倉을 박귀세면서 그의 命中率을 나날이 노피고잇다 北方의 赤熊 『쏘베-트』 聯邦은 百餘萬의 赤星章들이 그의 자랑거리 步兵隨伴砲의 砲口를 反『쏘베-트』 同盟에 向하고 『카사크』의 騎兵力을 크게 계획들을 듯고잇다 이것이 軍備縮少論이 多角多樣으로 變奏曲을 奏하는 現世界이다 列强의 進軍喇叭은 드시금 幽咽한 소래를 널일것이며 世界의 軍備는 어듸로 가며 어듸서 쇠칠것인가 이것을 알라면 먼저 그 內容如何부터 檢討하야볼것이다

現代精神의不安과 純粹文學의運命 (四)

裵俊豪

그러한 純粹文學! 그것에 從事하는 近代文學家들은 亦是 그들의 哲學家들이할 口吻에 따라서 哲學家가 온갓事物의 本質(本位)를 主張하는 代身 그들은 文學의 本質 소위 文學의 엣센스라는것을 主張하얏다 그것을 바꾸어말하면 소위 文學의 純粹性이다 (이 文學의 純粹性이라는데 對하야는 그것을 藝術的良心이라는가 또는 藝術性이라는 意味로서 合理化식히려는 부르조아 文人들이 或是잇스나 그것은 純全히 近代文學의 發展에 잇서 純文學의 歷史的 地位와 그의 性質을 沒理解한데서 나온 一時的

辨明에 不過하다 文學의 純粹性이란 亦是 내가 指摘한 바와 가티 文學을 爲한 文學의 本質 즉 그들의 永遠不變하는 엣센스를 말하고잇슴에 틀림이 업다 따라서 나는 純文學과 文學純粹性이라는 두 文句에 대하야 그로 아무 區別을 두지 안는다 純文學이나 文學의 純粹性이나 結局 同一한 것을 말하고 잇다고 본다) 어 文學의 『純粹性』 이라는데 對하야는 가든 近代文學家들이 면서도 그 時期의 便宜에 따라서 各各 한 便利한 意味를 附加식혀 말하고잇스나 결국 어느것이나 소위

藝術의 本質을 말하고 잇는데는 어느것이나 한가지다 이제 그것이 各時期의 主張者들에 依하야 엇더케 主張되어왓는가에 對하야 몃가지 重要한 例를 들어보자!

近代小說의 先祖 포-의 말은 太陽의 그 늘아래 이 詩라는 것과가티-詩 그 자신만치-純全히 詩를 爲하야 쓴 詩처럼 嚴肅하며 崇高한 것은 업다 『眞理의 要求는 苛酷하다 眞理는 마둘花에는 同情하지 안는다……

詩歌에 必要한것은 眞理에는 全然 無用하다』 즉 포-는 一切의 干涉에서 超越한 詩 그 自身의 神聖을 讚美하고잇다

이와 類似한 말을 오스카-·와일드를 爲始한 耽美主義者들의 藝術論에서 얼마든지 指摘할수잇거니와 뒤에 耽美主義에 對하야는 比較的 仔細히 理解하겟기 여긔서는 略하기로하고 近年에와서 모든 資本主義學者들의 여기에 對하야 한이야기에도 여러가지가잇다

여긔에 對하야 마이논크는 個條에는아서 說明하고잇다 『◇不純藝術은 自己存在의 經驗意識의 世界를

製造한 다 그에 反하야 純粹藝術에서는 經驗意識의 世界가 擴大되여 드되여 消滅한 그순간의 世界를 創造한다 ◇經驗意識의 消滅에 接近하면 接近할사록 純粹藝術의 價値를 내인다 即 네가

[illegible] 詩意識의 價値다!』

佛蘭西의 有名한 詩論家 [illegible]라보다는 『詩의 本質』을 論하면서 『詩人은 그의 純實性과 特異性의 極限에서 그 自身을 發案하며 表現하려고 하는 그의 意圖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詩的靈感에 依하야 映出된 詩的狀態!

詩人에 는 어떤 靈感의 固有한 特殊性 즉 一種의 個人的 에네르기-가 存在하는것이다』 라고 말하며 日本의 詩論家 阿部知二氏는 『現實에 對한 服從과 妥協이 아니고 現實과 鬪爭하며 그것에 秩序를 주기 위한 强한 精神을 가르침이 다』 라고 純粹性을 說明 雅川滉氏는 純粹의 契機를 說明하는데서 『頭腦의 純粹라는 强烈에 잇다는 見解보다는 그의 生活體驗의 深度와 强度에 잇다고 생각한다 文學의 實體와 그 實體에 對한 追求의 方法과의 兩者間에 잇는 그의 生活體驗의 變異와 한 게 變動하는 一方程式이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難澁한 文句를 羅列하고 한다

[illegible] 文學의 純粹性을 純粹히 文學의 스타일에 歸着식히는 者가 잇스며 新心理主義作家의 一部에서는 그것을 純粹 普遍에 代辯하려고하는 傾向도 잇다 이 밧게도 羅列할 例는 얼마든지 잇스나 그것을 一一히 羅列하지 안코도 그들이 多少의 差는 文句로서 純粹를 解釋하고잇슴에 不拘하고 根本에서는 永遠不變의 藝術의 本質 (最後로 남는것 相對的이 아니고 絶對的의 것) 을 主張하고잇슴에는 一致되고잇다는 事實을 알수잇다 따라서 文學의 純粹性이란 結局 文學

本質 永遠性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러한 意味에서 解釋되는 純粹性이라는 近代的 賦性을 타고난 純文學은 歷史的으로 어느 時期에 發生되엇스며 具體的으로 엇더한 形態를 밟어서 發展되여왓든가? 여긔에 對하야 一定한 準備知識을 가지는것이 亦是 純文學의 危機를 考察 하는데는 無條件으로 必要한것일줄생각한다

칸트哲學批判 그認識論의階級性을主로 (下)

柳 明 浩

그러나

直觀 또는 悟性形式이 그뻐그뻐함부로 作用해서는 안될것임으로 칸트는 그 統一機關으로 理性을 세우고 그 作用으로 靈魂 宇宙와 또 兩者의 統一로서의 神이라는 一種神秘한 생각을 들어왓다 主觀的 能力에 對하야서는 우와갓치 組織잇고 緻密한 說明이 잇스나 客觀的存在 即 感覺의 原因이 되는 『物自體』에 對해서는 칸트는 아무것도 알수업다 하엿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認識하는것은 우리 主觀이 만들어낸 對像 即 現象에 對해서만 正當히 認識할수잇슴으로 써이다 그럼으로 現象以外의 物自體에 對해서는 아무것도 알수업고 다만 우리의 感官을 觸發(刺戟)하야 感覺이 생기게 하는 感覺의 原因으로서 그 存在를 생각할수잇슬 따름이라는것이 칸트의 說明이다 이러케 우리의 認識을

現象 에 限定함으로써 칸트는 理性의 認識能力의 無限을 밋는 獨斷說 制限을 주는 同時에 아무것도 正當히 認識할수는 업 [illegible] 以上이 칸트가 가장 注力한 [illegible] 의매경이다

三、『物自體』의 矛盾과 그 階級性

上述한바와가치 칸트의主張은 實로 巧妙한 折衷이다 그러고 그는 [illegible] 한 論理를 가지고 先天的 能力의 存在를 證明하며 그 現象構成의 過程을 詳說하엿다 그럼으로 그의 認識論은 一見 從來의 認識論에 [illegible] 처 調和가 잇고 規模가 크고 또 莊嚴하야 實로 哲學의 大殿堂이라는 名稱을 듯기에 붓그럽지 안타 그러나 折衷은 어데서지 折衷이다 아무리 해서 對立한 兩便의 長點과 오든 點을 結合하야 圓滿한 解決을 지으려하여도 어데인가 破綻이 생기기 쉬운것이다 對立의 綜合은 오즉 對立한 두가지의

棄揚에 依하야서만 即 對立한 두가지의 엇더것도 아니면서 그 兩便의 主張의 發展된것을 同時에 包含한 그러한 綜合이 아니면 안된다

칸트一生의 눈물겨운 도록 眞摯한 努力의 結果인 그의 批判哲學도 折衷哲學인 點에 그 致命傷이 잇다 即 그 二元論的인 見地-一方에 主觀의 先天的 能力을 세우고 다른 一面에 物自體가 주는 主觀과 獨立한 主觀과 다른 存在를 認定한것이 그 致命傷이라 하겟다 『物自體』는 現象以外의 X 것이니 알아서 現象에 限定된 因果律을 이 物自體에다 適用할 수는 업다 그럼에 不拘하고 칸트가 感覺의 『原因』 으로서의 『物自體』의 存在를 許容한것은 分明한 矛盾이다 (이것은 칸트 生存時에 발서 『야코비』 가 指摘한것이다) 그럼으로 『야코비』 의 말과 가티 우리는 理論的으로는

到底히 物自體의 存在를 承認할수업는것이다 그러고 칸트 哲學에서 이 『物自體』를 除去해버리면 그것은 칸트後의 『헤겔』 [illegible] 學이되고 말것이다 『物自體』가 잇기 때문에 칸트의 哲學은 [illegible] 批判哲學으로서의 價値를 가지는것이다 그러나 우에 말한 『物自體』의 矛盾은 엇더한 說明으로도 救할수업는 矛盾이다 그럼으로 『物自體』의 存在업시는 칸트哲學에 들어갈수업고 또 한側自體의 存在에 [illegible]문에 칸트哲學에 머물을수도 업는것이다』 即 物自體는 칸트의 主張대로 둘수도업고 또 그것을 업새버리고

感覺 도 또한 우리主觀의 엇던 所産이라구 할수도업다 남아지 方途는 오직 『物自體』를 우리 主觀과 다른 獨立한것으로 即物質이라구하든길밧게 업을것이다 (精神, 物質, 兩者中의 아무것도 아닌것 이三者中 一을 取하야될터인데 第一 第三은 안되니까!) 이와가치 칸트의 折衷哲學을 못 밧지 追究하기만 한다면 唯物論이 될것이다 本來가 칸트의 折衷은 酷評하면 觀念論을 主張하구 십흔데 外界의 事物을 全然否認할수업슴으로 『物自體』 라는 이상한것을 觀念論에 다 添付한것이다 그러케 함으로서 觀念論의 여러가지 缺陷을 救하여 보자는 것이 엿다 그러나 結果는 다만 矛盾에 빠질 따름 [illegible] 을수업는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칸트로 하야금 이러케 『物自體』라는 存在를 假定케 하엿는가 그것은 當時의 社會的

宗敎 와 反目되는것을 만히 主張하는 自然科學의 成績에서 宗敎를 否定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칸트 自身의 말에도 歷歷히 나타나잇다 大槪 새로히 일어나는 支配階級인 資本家는 科學의 힘업시는 그 産業할수가 업섯고 宗敎의 힘을 빌지 안코는 大衆을 支配할수가 업섯든것이다 科學과 宗敎는 엇더케서라도 握手하지 안으면 안되게 되엿다 이것이 當時의 資本主義初創時代에 잇서서의 哲學에 對한 社會的 要求엿섯다 科學이 가르치는 대로 만나아가면 宗敎는 否認되여 大衆支配에 큰 障害가 될것이요 그러라고 宗敎만 내세우면 科學은 窒息되여 新生産方法은 發達이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 宗敎와 科學의

握手는 쉬운일이 아니엿다 이 重大한 哲學上 任務를 다 한것이 곳 칸트다 現象界는 自然科學에 맛겨서 마음대로 發展케 하고 『物自體』 라는 境界標를 세워놋코 이 境界以上은 나아지못하리라 여기는 宗敎王의 領域이라 하고 批判을 내린 솜씨는 實로 놀날만한 技術의 熟練을 보인다 同 [illegible] 의 그것이 얼마나 重大한것을 알수엿다 그러나 이제와서 만히 다른 社會的 立場에서 본다면 『物自體』는 實質이 아니면 안된다

칸트의 實踐哲學은 그럼으로 認識論에 못지 안은 重要性을 가진것이다 그러나 그것 오히려 宗敎에 갓가운 道德論이요 結局은 神에로 引導하는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對한 批判은 여기에서는 割愛하기로 한다

『物自體』의 階級性云云에 對하야 『그러면 칸트 直後의 헤겔哲學 新칸트 派 [illegible]後의 新헤겔派의 勃興은 엇더케 보느냐』 하는 疑問이 생길것이다 그러나 헤겔 哲學 自身의 生命은 짧앗스니 大槪 反動期라는것은 길지 안타 一時 支配階級이 보다 强한 힘 달아서 宗敎의 힘을 보다더 要求하는 [illegible]은 時期이기 때문이다

漢詩及時調募集

漢詩와 時調를 아래와가튼 規定으로 募集합니다

漢詩 題 喜雨 韻 押東

時調 題 喜雨

一、期限 七月十五日 (每月十五日과 三十日)

一、當選作은 薄謝進呈

一、原稿는 返還치아니함

一、新詩小曲도 募集함 (但題目은 隨意)

朝鮮日報學藝部

귀뜨라미로 博士學位

大町桂月아들

蟋蟀(귀뜨램이)과 鈴蟲(여치) 에 對하는 研究로 文章學家 大町桂月氏의 令息 大町文衛(三)氏는 博士學位를 밧게되엿다 한다 氏는 蟋[illegible]研究로 米의 遺傳學界와 細胞學界에 一大 센세슌을 이르켯다 帝大農學部를 卒業한 氏는 德川義親侯의 生物學 研究所와 農學部 研究室에서 十餘間 日本産蟋蟀 二十八種에 對하는 研究를 繼續한 結果로 米國의 맥크란氏가 一千九百年頃 飛蝗類에 對한 研究를 發布한 以來 世界學界에 殘餘한 問題로서 蟋蟀의 染色體에 對한것을 解決한것이다 그밧게 從來의 昆虫分類法에 對하야 重大한 修正을 加하엿다한다

멍텅구리

第1篇 記者生活 (四十二)

創作 鼠火 (廿四)

李 箕 永

원준이는 이불의에 공격에 엇잘줄을 몰넛다 그는 다시이러서서ㅡ

『그러나 우리는 이제도를일조일석에 고칠수는 업습니다 그러라면 우리는 종래의 관습을 봉중할의무가 잇슬줄압니다』

『그것은 말되지안슴니다 우리가만일 우리의생활상에엇던잘못을 발견할때는 우리는 그즉시로 그것을곳처야할 의무가잇슬줄압니다 만일 그러치안라면 우리는그잘못을 영영 고치지못하고 말것이외다』

『그러치! 그게 올흔말이』

칭중에서 누가 부르지젓다 그는 돌쇠에게서 그날밤에 개평을으든 남서방이엿다

『그러면 문제를 간단히 락착짓기위해서 다시 번복합시다 머관결 앗가 김서괴의보고를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인증하십닛가?』

광조는 다시 이러나서 뭇는다

잠시 방안은 쥐죽은듯이고요하엿다

그러자 돌쇠가 별안간 벌덕 이러슨다 그는앗가부터하고십흔말이 만헛스나 엇더케조리잇게 말할만한자신이 업서서 지금까지 망서리고 잇든참이다 그런데 그는 광조의말에용긔가낫다

『첫재 노름으로 말슴하면ㅡ처 처가들론 잘못햇사와유 하지만두 거는본시 노름군이되고십퍼서한것은안이외다 엇더케한닛가?일년내농사를지여야 먹울것은 켜몽을못먹고 식구는 만흔데 굴머죽을수업스니……쥐불노는날밤에 용삼이와 노름을한것도 실상은 이런케환장지경이되엿슬뿐아니라 용삼이가 소파돈이잇는줄을알고 노름하자고씌이는사람이 만흔줄을알기씌문에 그러라면 남에게쎄앗길것이업서서 그날밤에 노름을하엿지요 그것은 지금당장 용삼이를불너다가무러보서도 알것입니다 그리고노름을어되 커혼커만합닛가!갓모봉너머 리참사영감갓튼신니도 노름을하시지안슴닛가』

『노름은 그러타하고 가정의풍긔문란에대해서는 또 변명할말이 업느냐?』

청주사는 정중하게 돌쇠에게뭇는다 그는량반인째닭에 아래사람들에게는 언어에차별하엿다

『네?……돌재로 무슨 말슴인가요?ㅡ거긔 대해서도 커만을별히 잘못한것은 업습니다 그것도 이실직고하오니 용삼이커를불너다무러보십시요!』

좌중은 이새사실에 모다놀내엿다

『그럼 누구란말이냐!』

청주사의못는말에 돌쇠는 원준니를손가락질하엿다『원준니올시다』

『커사람이 밋쳣나 내가엇젯단말이야!』

원준니는 얼골이 새빨게젓다 색먹고떠든다

『지네가 그러케 아모도업는 귀미를보고 대낫에 옹삼이 집에들어가지안엇나』

좌중의시선은 모다원준니에게로집중하엿다 돌쇠는다시 긴장해서 부르지젓다

『어-? ?』

『오늘커녁에 이러케 모인것이 커는누구의조화란는것을 잘알고잇사외다 커하나를이동리에서 쪼처내랴는사람이라 지목해가지고 그리는것갓습니다마는 사실인즉 이와가튼홍제를 무민것입니다 앗가 이댁나리가 말슴하신것과갓치 젊은산애로 우연만산애커노코 누가외입안는산애가잇슴닛가? 비! 커죄는 지당히벌을밧사오리다 그러나벌은주시되 공평히주십시요』

돌쇠의말에 여러사람은가슴이 찔리엿다 ㅡ참으로누가감히 먼커돌쇠에게돌을던질수잇느냐?

『잉! 엉!』

별안간 구장은 담배스대를들고 휭ㅡ나간다 그는원준이에게 속은것이 분하가때문이엿다

『아니 웨이러나서요?』

『그럼 가지무엇해요 쌈두기관인데!』

청주사의 뭇는말에 그는이말을던지고 나가버린다

그는 코구멍이 벌름벌름하엿다

『허허참ㅡ별꼴다보겟군!』

『동무든개가 저무든개를나무라는셈이로군!』

좌중의 시선은 원준이게로집중되엿다

회합은 별안간 묵주머니가되고 여러사람들은 허궁허궁숨을 우스며 하나둘식 도라갓다 원준이는어느틈에 다라낫는지 가는것도보지못한사람이 만헛다

광조는 희삼의미소를우섯다

ㅡ그는 신성한가정의풍긔문란(?)이 쥐구녕을 못찻고쑥드러간것이 통쾌하엿다 ㅡ자유련애 만세!!……

돌쇠가 뒤산잔등을마넘으랴낫싸 뒤에서 누가 헐헐거분숨을쉬며 쏘처온다

『누구야!』

『나!』

그는 천만의외에 입분이엿다

『아니 임자가 웬일이야?』

돌쇠는 깜짝놀내서 부르지젓다

『쉬ㅡ나도 나도 구경을왓섯다우!』

『어ㅡ 그래죄다드럿는가?』

『그럼ㅡ 무슨일넌지 궁금해서 쏘처와밧지』

입분이는 돌쇠의손목을 쑥쥐엿다

『청주사아들의말을 아러드럿소?』

『커ㅡ무슨말넌지 자세히는몰나도 입자를록 두둔하는것갓래! 그러치?ㅡ난 들아래집동가리에숨엇섯서!』

입분이는 다시 돌쇠의손목을쑥ㅡ쥐여본다

『그래!』

『그럼우리를두던해주는 사람도 이세상에 잇구려!』 입분이는 죽은사람이 다시산것처럼 희한하게생각되엿다

『그러치! 사람은 커운차게사러가야돼 설사죄를짓드라도 사람으로서 진실해야 하느니ㅡ』

『옷자면 그이가 말을그러케한다우?』

『이번가서 대학교 공부하지안엇나!』

두사람의 대화는 어둠속에서 도란도란한다 입분이는돌쇠에서 원몸을실니다싶이 치개면서거름을 써ㅡ나앗다

『세상은 우리가모르는 별々상이 또잇는가부지? 그이(청주사의아들)는 그것을아는모양이안인가!』

돌쇠는 무엇을 골몰히 생각하다가 무심코 이런말을하엿다

『참말로 우리도 그런세상에서 사럿스면……』

그들은 한동안ㅡ아모말업시 거러갓다。ㅡ

(끗)

前御歌所寄人文學博士佐佐木信綱先生父君

佐佐木弘綱大人題詠

○たくひなき みたりのよはひ身ひとつに かさねて きみはよろづ世や經ん

―國使武内宿禰、浦島太郎、三浦大助―

近代的悒鬱을解消하고

腦를 쓸수록 나히를 먹을수록 漸漸强精해지는

肉體의 勇氣

奇妙! 무엇이 그를 만드나?

百里의 旅 는 九十里를 半으로 친다, 人生의 半은 五十, 六十이다, 그때부터 人間一代의 眞價가 나오는 것이다, 漸漸元氣活動力을 旺盛케하고, 두번다시 世에 나오지 못하는 世上에, 人生無上의 幸福과 成功을 다ㅣ어두지안으면 안된다, 하물며 젊은이가, 不自然行爲房事過度의 害이나, 心身過勞의 疲困이라든가, 弱한말을하고, 去勞當한 馬와가치 精神마지고잇스면, 안된다, 보담더ㅣ腦力精力을 回復식혀서 潑剌하게 活動할 硏究를 하지 안으면 안된다。

現代의 奇蹟 犬養前首相은 八十歲에 드러가는 高齡에 올너가, 그리고 精悍의 氣가 渾身에 팽차잇섯스나, 마참내 平生줄기어 蝮蛇를 먹엇다 는 일이 時事新報紙上에 報道된일이 잇섯다, 또 現法曹界에 令名 놉흔 竹內法學博士가, 雜誌農業世界의 紙上에, 스사로 發表한일이 잇슴에 보건대, 同博士는 大學時代부터 試驗에 疲勞된 腦를, 蝮蛇를 먹어 復活하고, 今日에도, 非常히 생각한일이 잇섯다 하며, 또는 밤을 새이며, 事務를 보고 疲困하여 쳣슴에, 翌日 大事件의 刑事辯護라도 하지안으면안될 때 가 잇스면, 辯護를 始作할 七八時間前에 蝮蛇를 먹으면, 그 辯論에 當하야, 身腦에 元氣가 나게되든, 氣分이되여

頭腦가 非常히 明敏 하히되여서, 마치엉킨실주(?)거와가티, 辯論의 條理의 手口를 하나發見하여 내이면, 그後로, 그 利食을 滋味잇시 條理가 서서 議論이 나오게 생각이 되여, 日本의 法曹界는 勿論, 學生들에게서도 蝮蛇의 分與를 求하게되나, 다ㅡ그 異常한 卓効에 驚嘆하고잇다, 學生들은, 試驗에 갑작히 하는 工夫로 頭腦를 酷使한 때에이 것을 쓰면은, 疲勞衰弱에 빠진다는 形勢는 도모지 皆無라 하야도 조타……고 自己의 經驗을 發表하여잇스나, 여기에 眼前의 奇蹟이라고 말할것은, 信州의 僻村서는 蝮蛇를

山蝮 이라 稱하고, 食用으로 하나, 山村에서는 恒常 이것을 食用으로하고, 强健無比, 夏는 炎日아래에 無帽로 終日勞働하여도 泰然히 一平生病이라는것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仙人과가치 不老長生하는 사람이 만타, 特히 赤蝮蛇를 貴重히 녀이나 하물며 信州伊那의 谷의 素封家 鹽澤家의 家傳秘法으로, 慶長時代부터 今日外지, 三百年間 連綿히 一日과가치 製造를 繼續하고잇는 有名한 赤蝮蛇酒 養命酒는, 赤蝮蛇의 活計에, 高山貴重藥草 七種을 配合하야 술을 당거, 海拔數千尺, 山高水明한 大自然의 氣候風土中에 年餘하고, 深山仙酒로 化한것이어라, 赤蝮蛇와 藥草의 配合에 依하야, 神秘的 貴重成分에 富하고, 單只 蝮蛇를 먹는다는 比가 아니고 身體中의 生活機能을 活潑케하며 腦를 조케하고 心氣를 强케하며,

精根疲困된男女 라도, 性的으로 어진다고, 傳派되여, 近來內閣의 大官, 陸海軍將星, 政界實業界의 名士로 비롯하야 愛飮家가 날로 만허지고, 實驗界의 好評이 날로 놉다, 머리가 둔햇하고, 身體가 무겁고, 疲勞倦怠키 쉬운이에, 한번은 試用하여라, 그 驗은 생각보다는 過하리라

藥書로 申込하시는분에게는, 參試飮用小瓶一本에, 家傳由來의 詳한 說明書 醫學博士大醫의 多數實驗錄을 添付하야, 全部無料로 送呈하겟사오니, 東京市 澁谷區 上通四丁目 卅番地 養命酒本舖出張所로 [illegible] 申込하시압。

無代進呈

信州鹽澤家三百年家傳秘法

日·米專賣特許―博覽會金牌受領

赤マムシ酒

高山藥草 七種合釀

養命酒

◇全國到處藥店 百貨店에서 販賣

醫學博士 (七十餘氏) 實驗御推奬

品切되엇슬때에는 直接發賣元으로 註文하시압, 前金註文=送料不要 代金引換은 送料實費要하옴

印目の來以長慶 登錄商標

傳造品이 販賣되고잇습니다 養命酒의 文字에 注意하시와 求하시옵

定價 大瓶 [illegible] 小瓶 [illegible]

發賣元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番地 養命酒本舖出張所 振替東京八八五五五番 電話青山五三九八番

朝鮮農業論 (四)

◇土地利用과農業經濟의研究

李勳求

또朝鮮農業의經營組織에잇서서도 이朝鮮役牛가 업시는 단한메이의土地를 耕起할수업는것이라고 보아도 크게틀님이업슬것이다 이와갓치 耕起와밋役用에 소를만히 부리여왓슴으로 소도또한 耕起와役利等 作業에가장適當한 體格을 具備하게되엿다 또牛肉生產者로서의 朝鮮牛는 조금晩熟性이지만 또한美味한 고기를 생산한다 牛의皮革도 또한 强韌하여서 各種皮革工業의原料로 가장 適當한 것이다 이와갓흔 모든長點이 잇슴으로農家가이畜牛를飼養함으로因하야 어든利益이 莫大한것은 두말할必要도 업는것이요 더욱이 經濟的 또는其他 半術이 許術만하면 農家는恒常 畜牛를 飼養할다고할것이다 그럼으로 畜牛는 朝鮮中어느곳에서던지 發見안이되는곳이업다 다만畜牛數의多小는 各道를딸아서 差異가잇는대 다음에提示하는表는 이點을明確히 보여줄것이다

第三十表 道別畜牛飼養表(一九三〇年度分)

道別	牡	牝	計	每十農家當	每百農夫當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根據昭和五年朝鮮總督府統計年報 一二〇頁

上表에依據하여보면 農夫數로나 農家數로比較하여보면北鮮飼養力이 南鮮地方보담 畜牛數가만코 이에反하야 耕作面積으로보면 南鮮地方이 北鮮地方보담만은것을알수가잇다 이런現象의 原因은아마도 北鮮의地力이南鮮의地力보다 人口의密度가稀薄한것과 또山地가만흔關係上 畜牛飼養하기가南鮮보다 容易한것에 起因된것인듯하고 또耕地面積에比하면南鮮이北鮮보담 만흔것은 아마도牛耕의耕地와밋集約度가 南鮮이 北鮮보담 큰것으로因由된것인듯하다

畜牛의飼料는 大部分이 農家의副產物로 되여잇다 冬期에는 藁稈類에大豆殼糠等을混合하여 한번 熱蒸한後에飼料로먹이고 夏期에는 靑草인대 近年에이르러 冬期의火食을 廢하고 冷食을식키는것이 漸增되여가며 또使役期間에는 大豆와其他穀物의 少量을 給與하나 그여름에는 안이다 이와가티 比較的粗食에 잘견대는것은또한朝鮮牛의特長이라고안이할수가업는것이다 朝鮮牛는 非常히 馴良하야 十三四歲의 小兒가 잘制御할수잇스며 可驚할만한 忍耐性을 가젓다 그럼으로 農役用牛로는 참말 理想的인것이다 農耕에 北鮮地方에서는 二頭를使用하지만 南鮮에서는 一頭를使用하는것이 普通이다 體格은 특튼하고 키는平均約四尺半이요 또平均體重은 約二千파운드乃至五百파운드의 荷物을 負擔할수잇스며 平均으로는約 三百五十파운드를負擔할수잇는것이다

去益險惡化하는 天安社會의不祥事

現職公職者로有罪受刑

恐喝傷害事件顚末

【天安】 충남천안읍에서현직공직자(現職公職者)로서법정에 나아가 공갈상해란죄의재단을 밧게되어 점점험악한 가운데서의외에도확대되어가는 공천의천안사회의불상사는 그발전과정에잇는 금일에잇서 말할수업는 치명상이 되고말엇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유감으로생각하는바로 사건발생지인 천안에잇서서 이것에대한보도는 그엇더한 어미로보아 일반신문긔자들은 침묵을엿까지 직히려하엿스나 이즘에 일으러서는 이미법률의재단을 밧게되며숨길내야숨길수업시되엿이상 부득이 구체적으로그사건의 진말을 간단히 보도코저하는바이다

事件의發端은 下水道工事費

◇負擔金不承諾으로

천안읍 본정통 하수구개수공사(下水溝改修工事)는 수년전부터 시급문제로 되여 공사촉진(工事促進)을 하여왓든바 지난 소화오년 십일월에일으러 주민의진정서까지 면과군을 경유하야 도청에 신달(申達)함을비롯하야 소화륙년오월부터 십부월경까지 수회에긍한이삼차의 진정도잇섯고 또는당국에서도 긴급한것으로 인정되엿는결과 공사비(工事費)가운데륙할(六割)은 국비(國費)로 사할(四割)은 관계지주(關係地主)의 부담으로하야 천안본정압정목 일등국도(一等國道)의 동측(東側)연장삼백팔십이메-돌 급히 사십사센치메-돌의 공고리트 공사는 제일긔공사로 소화칠년 칠월중순경에 준공하엿고 제이긔공사로는 동도서측(東道西側)연장 사백메-돌도 동년구월중에 착수하야 동년십월말경에 준공하엿슴으로 관계지주가운대 천안거주하는 지주들은 수모를 물론하고 하수구일간당(一間當) 부담금 륙원식을 아모이의업시 제공하엿든바 천안에서 약여섭오륙년간 거주하다가 근간에경성부로 이거한서강풍(西岡豊)씨만이 여러가지구실(口實)로 동측(東側)토지연장 오십륙메-돌에 대한 공사비 백칠십오원팔십삼전과 서측연상(西側延長)백팔십일메-돌월의 공사비 오백륙십오원팔십팔전 도합칠백사십일원륙십일전을 지금까지안코 공사설계(工事設計)에대한 강요(强要)할연만이라 하며 그공사진행에잇서서도 주의승낙업시 남의토지를 벗군때는것이 너무나 무리한것인즉 읍장에게응유하야불나구 천안서소지서장(天安署小池署長)에게 원조(援出)한사실도잇엇으며 당시에 천긔

소지서장은 서강씨가 천안온것을 다행으로도읍장과 읍회의원들 비롯하야 공사관계자들과 서강씨를 경찰서회의실에 초빙하야 사적(私的)으로중재를거듭하엿으나 결국효과를 보지못하엿다 그리고보니 사태는점점험악하여저서 집압한장내의공긔는 자못긴장되여 장래에 흉불상사가 발생할염려를한 서장은 경관일인을파동시겨 서강씨를 돌여보내엿든바 바로그날 저녁뻐이엿다고한다

그래서 이러한일이잇슨후 천안공직자일동은 서로번차례로 동할것을강구하엿스나 그역시 수포에도라가고말엇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는 림시 해결책으로도 일동이 년대책임으로 천안행지회(天安行之會)와 상공회(商工會)에서 서강씨가부담금지출할 공사비용을림시차수(一時借受)하야 청부업자에게지불하고 문제는미해결로 소화팔년인 금년에들어서게되엿다

消防組蹶起로 一時的解決이

◇…問題擴大의前兆

천안소방조(天安消防組)에서는 금번이사건에대하야 하등의 직접책임은업스나 소방조가 천안에잇서서 한의용단체(義勇團體)이니만큼 그들은이일이천안에잇서서 중대한사건이니 될수잇는대로 그어떠한 조흔긔회를 타서 천안에관계가기픈 서강씨의마음을완화시기여역경(逆境)에잇는 모든문제를 해결해볼수업슬가하는 고려를가지고 잇든차에 이해에도 례년행사(例年行事)로년말경계와 신년출초식(新年出初式)에관한협의를하기위하야 십이월중순경 그어느날밤에 조두사미(組頭寺尾)씨의 집에서 가부히를불고 여러가지 사항을협의하는도중에우연이하수구공사비문제까지미치게되여 참석한일동은천안의평화를도모하기위하야 서강씨에게 모든량해를구해보기로하고그자리에서 대표수명을뽑아십이월이십일에 경성에일으러 서강씨에게 모든 사정을진술하야 소방조피복신조비(消防組被服新調費)의긔부 만은 쾌히 승락하엿스나 이문제에 대한 소방조의 교섭은 분덜되고 말엇다 그래서 금년 일월사일에 소방조일동은 례년과가티 출초식이잇섯나자 오후녀시부터 신년연회가잇슨후 간부일동은 이차회를 열기위하야료리집으로 가는길에 사미자동차부(寺尾自働車部) 압헤서 공교하게도 서강씨를 만나게되여전긔소방조간부일동은 서강씨를 일본인료리집삼복(三福)으로 초대하야 주연을 배설한후그석상에서 여러가지 천안문제를가지고 서로간담하든쇠테에 서강씨를대하야 숙케이든 하수구공사비지출을 요구하엿든바 서강씨는 돌연이 태도를고치고일반에게 모욕적언사와 행동이잇섯다하야 상호간 격론과구타등으로 일시는대혼잡을 이루엇스나 그시에 천안읍장(前田邑長)이 잠시그좌석을 피해돌어간 서강씨를차저서 서로이 주석을베풀고 만단으로 다시금 읍의사정 곤란함을들어 량해를 거듭구한결과 이뻐에비로소 서강씨도자긔가 너무강경하든것이 잘못이라는것을 언명하고 공사비부담과 소방조피복신조비며 출초식

西岡氏入京 突然告訴提起

邑長以外三名이起訴

이미有罪로判決言渡

서강씨의 량해로 원만한해결을보게되여 관민일동이 깃버하는일방 일월이십오일 서강씨는 돌연이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검사국에천안읍장(前田邑長)소지서장(小池署長) 사미조두(寺尾組頭)의륙명을공갈상해(恐喝傷害)죄로 고소를제긔하엿는바 전긔구인이 일월사일밤 삼복로리점에서 무수한 폭행을 가하야륵골(肋骨)이불어지고그외에도 전신에상처를 밧게되며 부륵이 마음에줄겁지안흔 이권원약속수형을 하야주엇다는것이 그고소장의내용인바 소지서장(小池署長)의취하여엇사람은불긔소(不起訴)되고전긔읍장이하 삼명은 긔소되여 륙월에 십칠일에 아래와가티 관결언도가잇섯다한다

前田邑長 懲役十個月三年間 執行猶豫 寺尾組頭 汇島第一部長 淸水第二部長同上

組員一同의 同情的總辭職

천안소방조에서는금번이사건이어다지도 험악하게되여 중요간부로잇든 사미조이하 삼명은 형(刑)을 집행하는 금일에잇서서중임(重任)을 가지고 잇기가 천안사회를위하야 너무나미안하다는의미에서 현직을 사면케되는일방 일반조원들은 그동작의보조를 가티하는것이 당연한일이라하야 동정총사직(同情總辭職)을 단행하기로 결정되엿는바그실현 여하를딸어 새로히 또다일로 팔며암아 어느곳까지 파급(波及)될지자못일반은크게 주목중이라한다

仁川消防廳舍 一日에落成式

【仁川】 작년십월부터신축중이든 인천소방청사는 이제야준공되엿슴으로 오는칠월일일 오후두시부터 동청사의 락성식을 거행하다고한다

孁婆世界를一蹴 永遠의極樂으로

『나는간다잘잇거라』

◇妓生韓仙女의投身

【平壤】 이십팔일오후네시삼십분경 천하명승 모란봉아래릉라도(綾羅島)에 건너노흔 수도교(水道橋)에서 평양의명물인 기생 한선녀(韓仙女)(二〇)가 대동강 창파를향하여 뛰여날녀무참하도 자살을하여 버렷다 죽은이에 말미업스니 죽엄의 비밀을 알길이업스나 어린몸이 엇지 와가튼 십칠세의어린몸이 엇지하죽죽엇을가? 선녀의 아버지는 한창호(韓昌浩)로서 일즉이 순사생활을 하다가그후 세상이 용납지안는 죄를범하고 지금은 형무소철창에 매인바되엿나 창호의안해는 생활곤란이 원인으로 아모갓도몰으고 공부에만열중하고잇는 선녀를 부녀차관리(斂貨里)기생 김산월(金山月)의집에 양녀(養女)로 팔어버렷다 얼골어엿븐선녀는 기생학교에서나 양모에게 류달은귀엽을 밧엇다 그러나 호의호식하고귀여움을밧는 그리면에는 어린마음에도 무한한서름을 가젓슴인지 동무들에게 일상녀학생의생활이 그립고 가정부인 생활이 그립다고 이야기하야왓다 그런듯 이십팔일 오후에자긔와가장조화하는동무기생 최유선(崔有善)을 차저가 방안에만 잇스면 우울하고 더우니모란봉에산보나가자고 하여 둘이에 산보하여 수도교부근에 갓슬뻐에는 유선아내가잠간 수도교에 올나갓다올터이니 기다려라 부탁하고 밧부게 다리우로뛰여 올나가고유선는배가운데에서흘너나아오는 귀에저즌 노래를마조불으는모양이엿더니 유선아 잘잇거라 나는나는영원이간다 유선아 부디잘잇거라 작별의 손수건을 흔들며다리에 우름석긴 큰소래로 낙시질하든 어부와 유선색들을 격려하여뗘러진 현장에급행햇슬뻐에는 선녀는 한번물우에 소스후 영원히 자취를감초고말엇다한다

七個條項作成 目的貫徹決議

龍井市場無理徵稅對抗의 借地借家人大會에서

【鎭南浦】 진남포 룡정 시장(鎭南浦龍井市場)이 조합원 몃사람이 경영권가진것을 긔화로 가미법령으로 폐지된 배일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무리한세금을 바다소작본을가지고 시장으로살길을 엇고저 모혀든수백여의 소상인들에게 속첩 영향이 크다하여 동조합에고롤의 지세와무리한세금 밧는것을 감하든는폐지하기를 절치하 항의코저 룡정시장 차지차가인대회(龍井市場借地借家人大會)를 개최키로준비중 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칠일오후 구시반부터 비석옙의정년회관에서 룡정시장차지차가인대회를개하고 림시집행부로 의장최봉민(崔鳳敏)부의장김명환(金明煥)서긔호장신(胡昌信)옥원찬(玉元璨)씨를선정한후의안토의에들어가

一、金地料每朔一坪에對하여가리側으로는十錢 市場側으로는八錢으로할事
二、露店每朔一坪五錢
三、市場區外에서 地料徵收하는것은全廢할事
四、農村에서들어오는이에게는 一切稅金을밧지말것
五、貸家에關한修繕料는 全部家主가負擔할것
六、「마쟁이」를廢止할것
七、市場으로서 完全한設備를하여줄것
八、金融市場을迅速히設置하여달라고 關係當局에要望할것

이상과가티 여들가지조건을 만장일치 가결한후 이상의목적을 관철하기까지 본대회를 상설긔관(常設機關)으로두는동시에실행방법은 집행위원 십여인을선정하여 일체사무를 일임키로한후 동팔한시반에 산회하엿다고한다

◇執行委員 吳岳一 金東八 胡昌信 金相淵 金明煥 崔鳳敏 金龍王 吳應鍋 金炳 珠宋禮榮

變心한乃妻 慘殺事件公判

檢事、無期役을求刑

◇中國人乃夫、朝鮮人乃妻

【淸津】 함북명천(咸北明川)에서 발생된중국인 주년남자가 조선녀자인 자긔처를 광이로쳐서 죽인처참한사건은 지난이십칠일 오후두시에 청진지방법원에서 제일회공판이 개정되엿는데 사실은 중국산동성출생으로 명천군상고면포하동(明川郡上古面浦下洞)에 주소를두고잡화상을하는리자신(李自信)(四三)은 십년전에 산동으로부터 함북에와서 야채행상(野菜行商)을 하여 다소간돈량을 모아가지고술장사하든오행옥(吳杏玉)(二六)이란 조선인녀자와정을통하고 잇나가 맛치내 부부되엿다 하여오든바 수년전부터 전긔남자는 또一金파는녀자 박선매(朴仙梅)(二五)와정을통하여 첩으로하는 사실이낫타나서 가정에는불화의풍파가 이러나서 가재(家財)는 점점업서저가고빗쟁이가 소유산(所有產)을차압처분(差押處分)을하게됨으로 가옥파토지를 그의처오행옥의명의로 변경하엿드니 그후부터 처의태도가 갑작이변하여 남자를돗처내려는 긔색임으로 지난사월이십오일밤에 싸홈을하고 녀자는방에서 자고잇는데 남편된남자가 밧그로부터 석파는뻔이를 듣고 드러와서 자고잇는행옷의 미간을 일거에 쏘아 죽여서서 혀를 하간에너허두고 국비민라 에사실을후려는것이피살된녀자가다라고은전부(前夫)의사석 오대성(吳大成)(三〇)이가그의부(親父)의업화안도고하고 그것을 이웃사람에게 문실하여 마침 경찰의손에 검거된것인데 심정의신문에는 자긔가 딸이로 되어죽인사실을 부인하고 횡간에 헤어두는 팽이가여페지면서 이마가 상하여죽은것이오 결코라 살한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엿다 대정(大町)검사는 즉시무긔징역을 구형하엿다 인도는 오는칠월사일로 결정하엿다한다

여긴후회회에수백원을사취한것을자백하엿다한다

新聞觀覽會 創立紀念演劇

【安東縣】 안동현신문관람회에서는 창립사주년을 긔념키위하야 신국월성단(新劇月星團)을초빙하야 오는이십팔 구사십삼일밤을 당지상반봉남지좌(南地座)에서연극을 한다는데신문인들의 주최하는연극이니 만큼 문화향상에 참고할만한 각본으로당야의대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南浦體育會 會員懇親會

七月二日開催

【鎭南浦】 진남포체육회에서 회원간친회를 개최키로한바 장소는산화수사장(三和手山莊)이며 시일은칠월이일(日曜日)인데 회비는일원오십전식인데 서무부로 미리보내여주기를 바란다하며 당일은 오전여섯시 정각에 케일보통학교압헤서모이여일제히 도보로출발하기로되엿는데 회원외라도 원하는분은 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金浦酒造組合 景品抽籤發表

【金浦】 감포군주조조합(酒造組合)에서는판매 팔개소양조업자연합으로 지난 이십부터 금월이십일일까지 일개월동안 경품부대매출을개시중이든바경품매출긔한이 완료되여 지난이십오일 오천면한시부터 김포군청재무게안에서 추첨을 행한결과 당선번호는 아래와갓다한다

一等一人 一九、一二二
二等二人 五、一四八 一二九三
三等四人 六、二〇六〇 七一九九 一〇、五八一〇 一三、〇九二
四等 一四、〇六八外七八
五等二百人
六等 一萬九千七百八十五人
以上

地方人事

▲尹鳳鎬氏(鎭南浦地方監理事) 新任人事次去二十六日本報鎭南浦支局來訪

採鑛中止로 四百鑛夫流離

고래싸홈에새우등터지는격

海州金鑛紛糾續報

【海州】 긔보= 해주군 은동(海州郡銀洞)에 잇는 삼릉회사 해주광산(三菱會社海州鑛山)에서는 지난이십일일에 금번새풀 성적을보아 그대금중 반액식을 덕대에게 내대(內貸)하엿는데 이번 새풀이 전보다 수배십재어 수십배씩 줄어이래 수천원식이되야 한수도없시 금광을중지하 투자한것이 불과수백원 밧게안고조석으로 덕대이를 하는중인데그미터서 일하든사백여 광부는일자리를 일케되야 먹을것이 업서서 이리저리 류리하는인부가 부지기수 라한다

洋人村을鑛臺로 失業者를詐欺

姓名넷가진詐取漢

【平壤】 룡강군 금곡면(龍岡郡金谷面)출생 주소가 업는리호근(李浩根) 리명철(李炳哲)송영연(宋永然)장성삼(張成三)(三)은 최근부내 진정유곽(賑町遊廓)에서 돈을물쓰드시으로 이십륙일 평양서에 인치 취조한결과 륙월십오일부회내서성리(西城里)간수김경준(金京俊)의집에서자긔는국관사원인데 취직식혀준다하여동리한창옥(韓昌玉)(六)에게서오동비륙원삼십전을사취한후회사사장을면회하자하여경창리서양인부락에다리고가서인구에세워둔뒤 뭇길로바저달어나고 말엇다 어밧게도가는수단으로도서양이부락에유일만보대로 실업고(失業者)에울고잇는사람들속

數名의拳銃强盜 行人亂射致死

安東縣五道溝에서

【安東縣】 이십사일오전네시사십분경 오도구(五道溝)강안에게류하여든 예복을 검서하랴고자택을 떠난록도구에 거주하는우봉지(于鳳池)(五〇)는도중오도구길에서 돌연이 권총을소지한수명의 강도가나타나 권총을 란사하여우(于)의하복부에탄환이발이 명중하야 그자리에혼도하야그안 제오분국에서 탐지하고공안대원과 가인이 현장에급행하여 건긔우(于)를 만철병원에수용하고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오후륙시그만 사망하엿는데 범인은아직잡히지안헛다한다

寧遠에大雹災 麻農全滅(四千餘町步)

◇…馬鈴薯를代播

【平壤】 녕원군대흥면월창리(寧遠郡大興面月昌里)와광동리(廣洞里) 일대에는 이십삼일오후비시경부터 약십오분간 공날(大豆)만한 우박(雹)이 쏘다저 동리의 명산(名產)인 삼(蔴)을 사천여정보가 전멸하여 전연수확불능에빠저 할수업시감자(馬鈴薯)를파종하엿다한다 또한다른농작물에도 상당히 피해가만흔모양인데 목하조사중이라 한다

吉林大屯農場을 農民에分配自作

各人에二晌式을주어

【吉林】 영길현제십구강동대둔포자연(永吉縣第十區江東大屯泡子沿) 농장은조선동포백여호가모혀사는 집단 농장으로써 성적이량호한곳이며 금춘에 이르러김진호(金鎭晧)김재선(金在善)표학화(表鶴華) 청수영(成秀永)리봉희(李鳳熙)장태호(張台浩) 김석규(金錫奎) 침인계합작하야 일금 삼천오백원불드려 일반피난민에게 소작권을 주어경영하여 오든바 금번 신업한당지금융회리사김세원(金世元)씨와 지방유지져씨의알선으로동농장은조선인집단농장으로 유일한곳인만큼 몃개인에경영할것이안이라하야 반동민에게난호아 주어 각각자작농(自作農)으로 하도록함이 엇던가하는 여론이 대두하야 십구일 동동무계회 석상에서 이사회인의 쾌락을엇어 각개인별로 두향지(二晌地)식 분배하야 자작하기로 하엿다는바 일반은이사회인에게 대한 칭찬이만하다

軌道베고잠자다 少年一名轢死

新上驛附近의慘事

【新上】 지난이십칠일오후세시사십분경신북청행(新北靑行) 제오백사십일호 렬차가 신상역(新上驛)을못밋치기일마일의지점(地點)을진행할뻐금년열다섯살된소녀이 무참하게도득사(轢死)되엿다 소녀은 함남정평군춘류면 령흥리(咸南定平郡春柳面靈興里)리현오(李鉉昇)의 장남리호영(李浩永)으로 이날선로(線路)부근에서 소를먹여러나가(剛일)을 베고끈히잠드럿다가득사된것이라한다

貧民無料施療

並川醫院長篤志

【天安】 천안군갈전면병천시장(天安郡葛田面竝川市場)에는 면출생인송긔영(宋基永)씨는금녀봄에 경성의세브란쓰 의학전문학교를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그간에서 옥신축과 긔구구입등만반의준비가되여 거년오월하순경부터 개업하엿으며 씨는 일즉이 애쓰는바가잇어 의술이 자를대할뻐에 친절하게하고 치료비를 싸게밧는것은 물론이오 가난한 조선사람환자에게는 일절도움맛지안는다하야 일반주민들은 씨를제우고맙게 생각한다더라

史話 雲峴宮의봄 (一의十二)

琴童 作 石泉 畵

집에까지 돌아온 홍선은더 문밧게서 영초의 하인들을돌려 보냇다 그리고 마치 피하듯이 몰래 사랑으로 들어갓다―비록 가난은 하나마 자존심이 지극히 노픈그 아츰에 부인에게 부탁을 밧고 나갓다가 뷔인손으로 돌아온 변명을 하기가구찬엇다 팽경장에게 눈총나는 수모를바덧다는 말은 체면상못할 일이엇다 김병학에게 술을 어더먹고 옷을어더닙고 왓노라는 말도못할 말이엇다 이모든못할말들을 피하기위하여 홍선은 몰래 사랑으로 기어들어간 것이엇다

그러나 사랑에는 뜻밧게광경이 그의눈을 둥그러케 하게 하엿다

당연히 치울 사람이업다 해여진 보료며 해여진 장침(長枕)이며 해여진 안석이 노혀잇슬 사랑이엇다 아츰에자긔가 나갈뻐에도 그러하엿다 시 돌아온 지금에도 당연히 그리하여야 할것이엇다 그런데 그 방안에서 첫번 주인을 마즌것은 뜻뜻한 공긔엇다 뜻뜻하고 음침하여야 할 방에 뜻뜻한 공긔가 가득차 잇섯고 아랫목에는 비단으로 우민 새로운 보료며 안석이며 경침 사방침들이 주인의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잇섯다 구멍이 여기저기 뚤려잇슬 문창도 어느틈에 모도새옷이 발리웟다 이(영초에게 어더 입은것이나마) 비단옷에 감긴 공자에게 그다지 손색이 업는 방으로 어느덧 변하여 잇섯다

【?】

아직 술이 채 쌔이지안흔 홍선은 눈을 이리씻고 커다랏케 살펴보앗다 틀님업는 자긔의 집이엇다 내다보면 쓰러저 가는 아랫채며 거미줄친지의 추녀며―자긔의 집임에는 틀림이 업섯다

그러나 그 쓰러저가는 집의 방안은 아츰과는 딴판으로 권이 달리한것이엇다

홍선은 잠시 거기 우둑허니 서잇섯다 서잇슬동안 이 온갓 고난을 다 보고겪근홍선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앗다

홍선은 이것이 부인의 한일로 알엇다 자긔를 내보내기는하엿지만 아모리하여도변통해올듯 십지안허서 부인이 직접 다른데면으로활동을하며 과세의 준비를 넉넉히 한것이어니 이러케 생각하엿다궁핍하여 부인에게까지 이런폐를 끼치는것이 더욱 마음에 불안하엿다

오늘 두개의 인정을 보앗다 상가ㅅ집 개와 가치 가는곳마다 구박만 밧고 맛나는 사람에게마다 수모만 바더서 음분과 반발성만 마음ㅅ속에 잔득 걸렷든 홍선은 오늘 본 두개의 인정때문에 눈물겨워 젓다

잠시 그자리에 서잇든 홍선은 갓과 웃옷을 버서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엿다 모든 자긔의 자존심을 버서 버리고 부인에게미안하노라는 말 한마듸를 하기 위해서엿다 그러고 겸하여 감명함의 호의를 말하고 팽경장의횡포를 말하여 가티 분해하고가치감사하가를 위해서엿나

안들에 들어서 보니 아츰까지도 쓸쓸하기 짝이 업든 안뜰도 활긔를 띄엇다 부엌이며 뜰이며 쏙마두며 항것이업시 하인들은 과세의 음식을 차리노라고 욱적하고잇섯다 세찬한곤대 들어올곳이업는 이가난한 공자의 집에도 하인들이 뜰에 우굴거리고다니니 겨우 대목갓기도하엿고 사람 사는 집갓기도하엿다

이 가운데서 홍선은 자긔의 몸에 감긴은 비단옷을서 두뜻뜻이 쿵어보며 쿵어보며 명홍우에 올라섯다

【예고】 남지를 바라던 어떤 싱거운 세에 긔를 감초기 위하여 백구사와 다리를 코로 부르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홍선을 부인은 이려서면서 마저다 이 부인은 벼락서 이려서서 아버지의귀떡옷맛는 소년―예명을 게동이라 하는이 소년이 여덜도 삼백여주에 군림할 고종 리재황(李載晃)이엇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 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堤川支局 位置 堤川郡邑內 支局長 金哲洙

平澤支局 位置 京畿道平澤驛前 支局長 柳璡

浦項支局 位置 浦項邑榮町 支局長 鄭日善

會寧支局 位置 會寧郡邑內 支局長 金昌壽

保寧支局 位置 保寧郡熊川面 支局長 吳熙貞

端川支局 位置 端川郡邑內 支局長 金德仁

謹告

端川支局 記者 金聖七 顧問 安昌憲 右와如히新任함

浦項支局 總務兼記者 金永昊 記者 鄭義昊 記者 李相喆 右와如히新任함

蔚山支局 兵營分局長 金鍾奭 顧問 金在洙 同 劉昌植 右와如히新任함

宜川支局 東休分局記者 李斗煥 右와如히新任함

安東縣支局 記者 金天熙 右와如히新任함

廣州支局 記者 柳良燮 右와如히新任함

羅津支局 梨浦分局長 李達春 同記者 李昌業 右와如히新任함

青陽支局 總務兼記者 [illegible]鍾完 顧問 田在壽 右와如히新任함

今日

崇專巡廻演劇音樂大會

△場所 崇專大講堂 (下午八時半)

◇主催 崇專學生基靑農村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